

통일신라 석등 연구

정 윤 서*

〈목 차〉

- I. 머리말
- II. 통일신라 등공양과 석등의 구조
- III. 통일신라 석등의 조형적 특징
- IV. 통일신라 석등조성과 공양의례
- V. 맺음말

국문요약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의 석등은 280여기가 전한다. 그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약 60여기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각 부재의 일부만이 전한다. 통일신라시대 석등은 90여 기가 남아 전하며, 그 가운데 상륜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재가 모두 남아있는 완형석 등은 총 24기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신라 석등에 대한 연구는 자료소개 혹은 간주석의 형태에 따른 유형분류와 그 양식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석등의 배치에 대한 개설적인 연구도 시작되었으며, 석등의 기능을 공양시설이면서 동시에 야간에 맹수로부터 사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통일신라 석등 전체에 대한 조형과 기능 분석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간주석을 제외한 하대석·상대석·화사석·옥개석 등 나머지 부재에 대한 양식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석등전체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통일신라 석등의 양식적인 접근과 석등의 조성목적, 그리고 석등이 공양시설로서 가지는 상징성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전과 문헌사료에서 기록하고 있는 등공양의 의미와 기능을 살핌으로써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개념과 그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일신라 석등의 작품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간주석의 형태에 따라 八角形·雙獅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子形·鼓腹形·人物形으로 나누어, 화사석의 화장의 개수와 부조상의 유무, 팔각 옥개석의 상부에 위치한 蓮花冠과 전각의 끝에 위치한 귀꽃의 유무, 그리고 하대석 연화대석의 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 각 부재의 결구방식에 따른 특징을 살핍으로써, 통일신라 석등이 가지는 시기별 양식변천을 도출하여 그 조형적인 특징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석등 뿐만 아니라 삼단팔각대좌를 취하는 통일신라 불상 대좌석, 변형 연화대좌형 간주석을 가지는 9세기 후반의 승탑 기단부를 함께 고려하여, 통일신라 석등의 양식변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공양시설로서 사찰석등이 가지는 성격을 고대사회의 불교 의식과 의례를 통해 살펴보고, 사찰의 야외조성물로서 제작된 석등의 조성배경을 문헌자료와 예배행위, 금당구조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主題語：統一新羅, 石燈, 燈供養, 雙獅子, 鼓腹形, 供養 人物像,
奉爐臺, 儀禮

I. 머리말

石燈은 불을 밝히는 돌로 만들어진 燈具로 석탑 및 승탑과 함께 불교의 석조문화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佛陀의 光明을 상징하고, 供養의 의미와 부합되어 獻燈·光明燈이라고도 불리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석등은 총 280여 점으로, 그 가운데 통일신라의 석등은 완형석등이 24점이며,¹⁾ 부재의 일부가 확인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90여 기가 남아 있다.²⁾ 그 중 석등의 원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총 16곳의 22예로, 모두 사찰의 주 예배공간 내에 위치하여, 불상이 봉안된 금당이나 탑과의 전면에서 부처를 향한 공양시설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통일신라 석등이라 함은 사찰석등으로 한정됨을 밝힌다.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석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이다.³⁾ 문

1) 현존하는 석등 가운데 조성당시의 상륜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보림사 석탑이 현존 석탑 가운데 유일하게 그 원형을 가지고 있어, 보림사 석등 또한 그러하리라고 추정된다. 그리하여 다른 부재에 비해 결실·파손이 큰 야외건조물의 상륜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재가 원형을 유지한 것을 완형석등으로 간주하였다.

2) 國立文化財研究所, 1999, 『石燈調査報告書 I: 竿柱石篇』, 348~355쪽을 참고하였다.

3) 秦弘燮, 1966, 『韓國의 石燈』, 『文化財』2, 文化財管理局.

박경식, 1981, 『Nepal石燈에 對한 考察』, 『東國史學』15·16, 東國史學會.

_____, 1990, 『신라하대의 고복형석등(鼓腹形石燈)에 관한 고찰』, 『史學志』, 단국사학회.

朴炳永, 1975, 『新羅의 石造美術小考』, 『論文集』10, 大邱教育大學.

윤준용, 1995, 『한국 사찰건축에 있어서 석등의 배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李龜烈, 1978, 『中興山城의 쌍사자석등』, 『法輪』110, 法輪社.

李蘭英, 2002, 『韓國 雙獅子石燈 樣式 研究 試論』, 『文化史學』17, 韓國文化史學會.

장충식, 1983,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美術史學研究(舊 考古美術)』, 한국미술사학회.

鄭明鎬, 1964, 『靑龍寺普覺國師塔碑와 石燈』, 『古考美術』5, 고고미술동인회.

_____, 1968, 『상주 유곡리 삼층석탑과 석등제』,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한국미술사학회.

_____, 1970, 『韓國石燈의 樣式變遷: 三國新羅時代 石燈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_____, 1978, 『益山地域에서 發見된 石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2,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_____, 1978, 『장흥 천관사 신라석등』,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한국미술사학회.

_____, 1983, 『익산문화권에 관한 연구 미륵사지석등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_____, 1990, 『신라하대의 鼓腹形石燈에 관한 고찰』, 『사학지』, 단국사학회.

_____, 1992, 『韓國 石燈樣式史 연구』, 檀國大 박사학위논문.

_____, 1992, 『韓國 石燈樣式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 1995, 『우리 나라의 석등 II』, 『古美術』39, 한국고미술협회.

화침탈적인 성격을 가지며 시작된 일제시대의 문화재 조사 이후, 해방과 분단을 거치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우리 민족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했고, 석등에 대한 연구도 그 맥을 같이하였다.

현재까지의 석등연구는 통일신라시대 전체를 다루는 통사적인 연구가 부진하며, 간주석을 제외한 하대석·상대석·화사석·옥개석 등 나머지 부재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분석하지 못해, 석등전체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찰의 석등 뿐 만 아니라 분묘 앞과 궁궐건축에서 보여지는 장명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사찰석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해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불교에서의 등공양과 통일신라 석등의 구조를 살핀 뒤, 간주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화사석 화창의 개수와 부조상의 유무, 팔각 옥개석의 상부에 위치한 蓮花冠과 전각의 끝에 위치한 귀꽃의 유무, 그리고 하대석의 연화대석 형태 등으로 유형 분류할 것이다. 분류된 유형에 따라 각 부재의 결구방식을 살펴 통일신라 석등의 조형적 특징을 해석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석등 뿐 만 아니라 三段八角臺座를 취하는 통일신라 불상 대좌석과 변형 연화대좌 간주석을 가지는 9세기 후반의 승탑 기단부를 편년 기준으로 삼아 석등의 양식변천을 돕고자 한다.

그리고 공양시설로서 사찰석등이 가지는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고대 불교 의식과 공양의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신라 석등의 조성배경을 문헌자료와 예배행위, 금당구조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밖의 의례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정의내리고자 한다.

II. 통일신라 등공양과 석등의 구조

불교에서 어둠은 번뇌를 의미하고, 불빛은 지혜를 상징한다. 또 어둠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사바세계이며, 빛은 이를 극복한 세상으로 바라본다. 그리하여 燈을 밝히는 것은 곧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의미하여, 불교에서는 佛前에 불을 밝히는 燃燈供養을 중요시하였다.

_____, 2002, 『京畿道の 石燈에 관한 考察 : 지정된 석등을 중심으로』, 『文化史學』18, 韓國文化學會.

鄭永鎬, 1963, 『光州有銘石燈』, 『古考美術』4, 고고미술동인회.

최향일, 1987, 『寺院石燈의 형태 및 배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黃壽永, 1962, 『益山 彌勒寺止의 百濟石燈』, 『古考美術』3.

이러한 불교의 등공양은 인도에서 힌두교 신들에게 물·향·꽃·등불·음식을 바치던 관습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석가 생존시기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 초기경전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 『增一阿含經』에서는 燈光如來가 寶藏如來에게 매일 등불과 기름으로 燃燈供養을 한 공덕으로 成佛의 授記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⁴⁾

대승경전이 성립된 이후에는 연등이 六波羅密 가운데 하나인 공덕바라밀의 방편으로 확고히 인식되어, 『大寶積經』에서는 華鬘·香·衣服·瓔珞·寶璠幡旗와 함께 복덕을 쌓는 갖가지 공양물로서 연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大寶積經』의 제 77~79권은 독립경전으로 鳩摩羅什에 의해 姚秦 弘始 7년(405)에 한역되어 『菩薩藏經』으로 유포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燃燈功德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삼막삼보리를 배우고자 하면, 혹 성문승의 사람이거나, 연각승의 사람이거나, 혹 대승인이거나, 혹은 나머지 중생이거나 마땅히 시방의 십계의 십불의 명호를 외우고, 십천의 燈을 초나 기름으로 켜며, 향과 磨香을 또한 燈 숫자대로 하고, 갖가지 꽃, 갖가지 과실, 갖가지 잎으로 큰 공양을 짓고 큰 보시를 행하며...”

그리고 『大般若波羅蜜多經』에서는 경전의 말씀을 외우며, 이와 함께 等香과 의복·영락·보배·당기·번기·일산과 온갖 묘하고 진기한 伎樂과 燈明으로 공양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⁵⁾ 『華嚴經』에서는 단순히 다양한 공양물들의 하나로서 언급된 위의 사례와는 달리, 등불의 종류와 공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등공양의 목적과 방법을 설한다. 『賢愚經』, 『貧女難陀品』에서는 가난한 여인 난타의 정성껏 바친 등불 하나가 왕이 바친 다른 등불들이 모두 꺼진 후에도 꺼지지 않고 빛났다는 이야기로, 정성스런 마음에서 우리난 연등이 얼마나 큰 공덕을 이루는가를 시사하고 있다.⁶⁾ 『雜寶藏經』에서는 승가의 自姿日에 부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등불을 켜 공양한 공덕으로 천상에 나게 된 한 여인의 인연담과 관련한 연등관련 설화를 기록하고 있다.⁷⁾ 燃燈功德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경전으로는 『阿闍世王授決經』, 『佛說施燈功德經』, 『佛爲首迦長者說業報着別徑』 등이 있는데, 『阿闍世王授決經』은 阿闍世王이 부

4) 『增一阿含經』 권38, 『馬血天子品』2.

5) 『大般若波羅蜜多經』 권 429, 『功德品』(『한글대장경』27, 본야부 11, 582쪽)

6) 『賢愚經』, 『貧女難陀品』 86~90쪽.(『한글대장경』15, 본연부 7)

7) 『한글대장경』15, 본연부 7, 『雜寶藏經』 권 5, 449쪽.

처님을 지극정성으로 獻燈과 供花하여 淨其所部如來라는 수결을 받았다는 인연설화이다.⁸⁾

『佛說施燈功德經』은 흔히 연등공덕의 전거경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燈을 보시하는 공덕이 매우 큼을 설법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三寶를 믿고 燈을 켜면 그 공덕이 무량할 뿐 아니라, 부처가 죽은 후 탑과 절에 등을 밝히는 사람은 3가지 청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죽은 후에는 33天에 태어나 다섯 가지의 청정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는데, 만약 佛塔墓에 施燈하면 그것이 심지불만을 밝힌 작은 것일지라도 福德은 대단히 커서, 임종 시에 네 가지 광명을 보게 된다고 설한다.

『불설시등공덕경』의 성립배경은 대승불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탑 등을 건립하여 예배의례를 행하는 불탑숭배가 융성해지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불탑신앙의 유행과 아울러 造塔·造像·浴像 등의 공덕을 설한 경전들이 성립되었고, 불탑신앙이 유행됨에 따라 등공양도 보편화되어 연등은 불교 의례화되어 불교행사에서 중요한 법식으로 정착되었다.⁹⁾

고대 한반도는 불교 전래와 함께 종교 관념 뿐 만 아니라, 佛經·佛像, 그리고 冥檀香 등을 함께 전래 받았다.¹⁰⁾ 이와 함께 공양에 대한 개념도 전해졌는데, 등공양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三國遺事』에서 확인된다. 첫 번째로 “오진은 일찍이 下柯山 鵲嶺寺에 거처하면서, 매일 밤 팔을 펴 부석사의 등을 켜다.”¹¹⁾는 기록과 “이에 예종은 크게 기뻐하여 十員殿 왼쪽 小殿에 (佛牙를) 모시고 언제나 (전각문은) 자물쇠로 걸고 밖에는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혔는데, (왕이) 친히 행차하는 날에는 전각문을 열고 공손히 예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그리고 석등의 조성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咸通 9년인 景文王 8년(868)에 경문대왕과 文懿皇后, 眞聖女王이 주관하여 석등을 건립하고, 진성여왕 5년(891)에 승려 入雲이 곡식 100석으로 烏乎比所里에 사는 公晝와 俊休, 두 사람의 눈을 매입한 사실을 기술한 『開仙寺石燈記』가 있다.

8) 『한글대장경』66, 경집부 5, 『阿闍世王授決經』, 559~563쪽.

9) 안지원, 1999, 『高麗時代 國家佛教儀禮 研究 : 燃燈·八關會와 帝釋道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6쪽.

10) 『三國遺事』권 제3, 興法 제3, 『順道肇麗』, 『難陀闢濟』, 『阿道基羅』條에서 확인된다.

11) 『三國遺事』권 제4, 義解 제5, 『義湘傳教』, ‘各有傳 眞 嘗處下柯山鵲嶺寺. 每夜伸臂點浮石室燈.’

12) 『三國遺事』卷 제3, 感通 제7, 『前後所將舍利』條 ‘於是睿宗大喜 奉安于十員殿左掖小殿 常鑰匙殿門 施香燈于外 每親幸日 開殿瞻敬’

경문대왕님과 문의황후님, 그리고 큰 공주님께서는 불을 밝힐 석등을 세우기를 바라셨다. 唐나라 咸通 9년(868) 戊子해 음력 2월 저녁에 달빛을 잇게 하고자 前任 國子監卿인 沙干 金中庸이 (등을 밝힐) 기름의 경비로 3백석을 날라오니 승려 靈罔가 석등을 건립하였다(혹은 건립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龍紀 3년 (실은 大順 2년, 891) 辛亥해 10월 어느날 승려 入雲은 서울에서 보내 준 租(혹은 서울에 보내야 할 조) 1백석으로 烏乎比所里의 公書와 俊休에게서 그 몫의 石保坪 大業에 있는 물가의 논 4결 [注: 논은 5뽕기로 되어 있는데, 동쪽은 令行의 토지이고 북쪽도 마찬가지다. 남쪽은 池宅의 토지이고 서쪽은 개울 이디과 물가로부터 멀리 있는 논 10결을 영구히 샀다.¹³⁾

『東文選』에 수록된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條에서는 燈具의 제작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인다. 이 등시설은 護國義營都將 重關祭인 異才가 꿈을 통해 적병의 침입을 예견하고서, 法燈을 높이 켜 兵火를 물리치기 위해 호국적인 성격을 가지며 908년에 목제로 제작하였다고, 제작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등루를 제작한 후 범회를 연 것도 기록하고 있다.

天祐 5년 戊辰년 겨울 10월 護國義營都將 重關祭인 異才가 南嶺에 八角燈樓를 세웠다. 국가의 경사를 기원하며 전쟁의 화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기를, “하늘이 내리는 화가 아직 끝나지 않고 땅은 오히려 간악한 무리를 허용하는구나. 시국이 위태하면 생명이 모두 위태하며, 세상이 어지러우면 인심도 어지러운 법이다. 내가 우연히 먼저 깨닫게 되었으니, 이에 대책을 신중히 세워야 할 것이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많은데 어찌 미약한 힘을 쓰기를 부끄러워 하리요.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결심함은 불사를 높이는 것이다. 바라기는 어두운 곳이 생기지 아니하여 두루 미혹한 무리를 깨우치게 하려면 마땅히 法燈을 높이 달아서 빨리 兵火를 없애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 좋은 곳을 택하여 높이 누각을 세우고 등불을 켜서 성 위에 세워 놓고 영원히 불등이 빛을 발하여 적병의 침략을

13) 景文大王主

文懿皇后主大娘主願燈立」
 柱唐咸通九年戊子中春夕」
 繼月光前國子監卿沙干金」
 中庸送上油糧業租三百碩」
 僧靈罔 建立石燈」
 龍紀三年辛亥十月 日僧入雲京租」
 一百碩烏乎比所里公書俊休二人」
 常買其分石保坪大業渚沓四結五畦東令行土北同土南池宅土」
 西川奧沓十結八畦東令行土西北同土南池宅土」
 土南池宅土」(『韓國金石全文』, 中世上篇, 1984)

방어하게 하였다.

그 해 첫겨울에 燈樓를 세우고, 11월 4일 公山桐寺의 弘順大德을 맞이하여 座主를 삼고, 齋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持念緣善大德, 興輪寺의 融善呪師 등의 고승들이 다 모여들어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 묘하다. 이 공덕이여. 8각등의 아홉 가지 광채가 밤중에 사방으로 비추어 깊숙한 곳이라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며, 감동한 바가 있으며 반드시 통하였다. ... 14)

한반도에서 연등회가 행해진 것은 중국 상원연등회의 영향이다. 중국의 상원연등회가 한반도에 전해져 景文王 6년(866) 1월 15일 황룡사에서 연회로서 최초로 개최되었고, 이후 관등을 위해 眞聖王 4년(890)에 황룡사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6세기 말경부터 궁정을 비롯하여 사원·민간 할 것 없이 유행한 중국과는 달리, 고대 한반도에서는 왕실에 의해 護國寺刹인 황룡사에서 연회적인 성격을 가지며 시행되어 차이를 보인다. 고대 한반도에서의 燈具는 오진이 자신의 팔을 뻗쳐 부석사에 등공양을 행한 개인적인 공덕행위, 신라 수창원의 팔각등루와 고대 호국사찰에서 확인되는 석등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호국적인 성격, 왕실에 의한 연회적인 성격 등을 함께 가지며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基壇部

1) 地臺石

지대석은 석등을 비롯한 탑·승탑 등 불교의 야외 건조물 뿐 만 아니라, 주택·성곽·불교건축 등 다양한 건축물의 기반시설로서 사용된다. 이는 地定¹⁵⁾을 한 대지 위로 면석을 이용하여 매끄럽지 못한 지면을 평탄하게 만듦으로써, 상부구조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기단부의 축조는 대개 장방형·사다리꼴 모양의 판석을 걸구시키며 형성되는데, 통일신라 석등의 지대석은 팔각 혹은 방형의 형태가 확인된다.

14) 『東文選』권 제64, 記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條.

15) 地定은 건조물을 축조할 때, 땅을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을 말하며, 초석·기단부 등이 놓일 자리에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 내부를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뉜다. 잔자갈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積心石지정, 모래를 층층이 물을 부어가면서 다져 올리는 立砂지정, 지반이 약하거나 건물의 규모가 매우 크고, 하중이 과할 때 사용되는 長臺石지정, 단순히 흙만을 달고질하여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려 기초를 조성하는 版築지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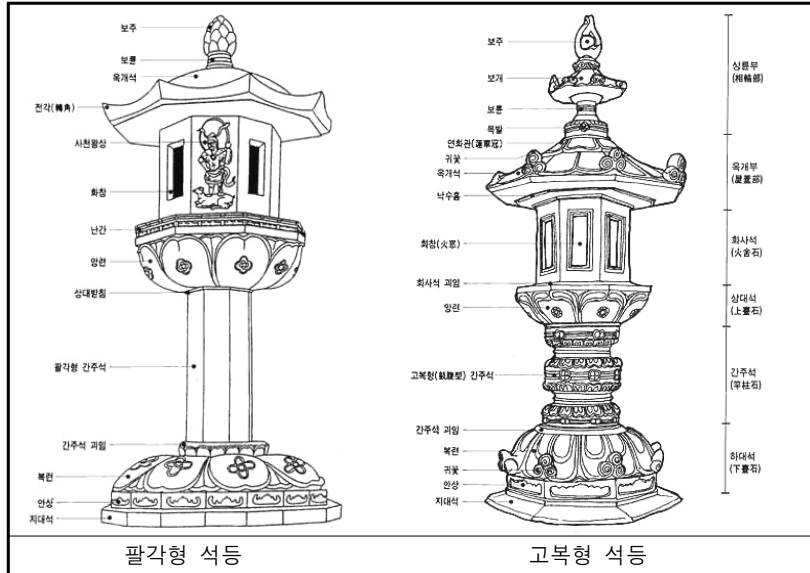


그림 1. 석등의 구조 및 부분별 명칭

2) 下臺石

석등의 하대석은 팔각 하대하석과 함께 복련의 형태로 8판 혹은 16판의 연판이 조합된 하대상석, 즉 연화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하석은 측면에 안상·동물상·향로·천인상 등이 부조되어 장엄되고, 하대상석을 받치기 위해 호·각형의 받침대가 하대하석의 상면에 몰딩되어 표현된다. 연화대석은 대부분 복련의 형태로 제작되며, 연판의 끝에 귀꽃을 장식하거나 연판의 위로 花紋·葉紋·忍冬唐草紋 등이 표현된다. 하대상석의 상면에는 간주석받침이 호·각형으로 조출되는데, 간주석받침은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별석으로 괴임대를 조성하는 사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굽형과 권운문대를 형성한 것 등 2가지 형태가 보인다.

3) 竿柱石

간주석은 기단부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대석과 상대석 사이에 삽입되는 부재이다. 대개 석재를 가공하여 팔각의 형태를 만들거나, 두 마리의 사자가 앞발을 위로 들고 가슴을 맞대면서 상대석과 탑신부를 받치며 서있는 자세를 취하는 쌍사자형, 그리고 마치 장고의 배부분과 같은 모습을 취한 고복형, 간주석부분에 右膝着地한 인물상을 대체한 인물형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팔각의 일반형 석등은 외면에 아무런 장식을 두지 않으며, 쌍사자형은 네 다리의 발 모양·갈퀴나 꼬리의 털 등을 통하여 보다 역동적인 효과를 표출한다. 고북형은 외면을 화문이나 복련·양련의 연화문, 帶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모습을 취한다.

4) 上臺石

대개 상대석은 하대석과 동일한 형태로 조성되거나 혹은 하대석에 비해 보다 장식적으로 다양한 문양을 조식하며 표현된다. 이는 양련의 모습으로 대부분 복엽이고, 귀꽃을 나타내는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花紋이나 葉紋을 연판의 위로 부조하거나 忍冬唐草紋·寶相華紋 등으로 장식한다. 상대석은 간주석과 연결되는 저면에 호·각형으로 상대석받침을 두고, 상면에는 화사석을 받치기 위해 한번 더 호·각형으로 화사석받침을 마련한다. 이는 하대석과 유사하게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화사석받침으로 별석의 괴임대를 조성하기도 한다.

2. 火舍部

1) 火舍石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화사석은 모두 평면 8각형 구조를 취하며, 이러한 형태는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 특히 고려시대가 되면 화사석이 4각·6각·변형 8각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 차이를 보인다.¹⁶⁾ 단순한 팔각의 형태를 취하는 통일신라 화사석은 화창을 4개 혹은 8개로 마련하는데, 화창이 4개 조성될 때에는 두개의 창이 서로 마주보게 배치된다. 이렇게 화창을 만들고 화창의 외면에 1단의 윤곽대를 두어 외곽을 정확하게 구획시키는데, 그와 함께 윤곽대를 접하며 못구멍들이 6~12개 등 다양하게 조성된다. 이는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석등의 재질과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화창을 장식하거나, 혹은 못구멍을 이용하여 木製·金屬製の 창문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화사석 내부는 상부까지 뚫음으로써, 등공양을 할 때 화사석 내부에서 연소되고 있는 연기를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화창이 8개로 변화되면서 점차 연기구멍의 제작이 생략되기

¹⁶⁾ 정명호 선생은 화사석의 형태를 양식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八角을 典型樣式, 六角은 過渡樣式, 사각은 發展양식으로 보았다. 특히 선생은 화사석의 형태를 통해 평면 팔각의 화사석은 통일신라의 전형으로, 이후 고려시대가 되면 평면육각·평면사각형의 화사석이 등장하여 사찰의 석등 뿐만 아니라 분묘·주택에 설치되는 장명등의 형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정명호, 1992, 『韓國 石燈樣式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 한다. 내부에 등이 봉안되는 자리는 화창 하면의 높이와 동일하게 마련되거나 혹은 높거나 낮게 조성된다.

2) 屋蓋石

화사석의 위로는 야외에 노출된 석등이 비와 눈 등으로부터 중심부인 화사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부구조물인 屋蓋石을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대개 팔각의 형태로 제작되는 옥개석은 상면의 윗부분에 연화관을 두어 이를 장식하거나 전각의 끝에 귀꽃을 조성하여 보다 화려하게 장엄한다. 특히 옥개석은 비·눈이 내렸을 때 옥개석의 위로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을 옥개석 저면의 절수구로 유도하여 이것이 화사석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한 옥개석의 중앙부를 다양한 형태로 뚫어서 화사석 상부로부터 빠져나온 연기를 상륜부까지 이어지게 해 외부로 유출시킨다. 대개 옥개석의 저면에는 호·각형의 저면받침을 두고, 상면에는 호·각형의 상륜부받침대를 마련한다.

3. 相輪部

상륜부는 석등 뿐 만 아니라 탑·승탑 등의 상부구조로 장엄된다. 대개 탑과의 경우 철제찰주를 가지며 석재로 조성되나, 청동·철 등의 금속재질로 제작되기도 한다. 그 기원은 인도의 불탑 위에 세워진 傘蓋에서 비롯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성 당시의 형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석등의 경우는 전무하고, 석탑의 사례로서 보림사 동·서 3층석탑이 유일하다. 그러나 석등의 상륜부는 원형으로 남아 전하는 것이 없어, 정확한 형태를 단정 짓기 어려운데, 현재 전하는 석등의 상륜부는 크게 보주만을 가지는 것과 탑의 상륜부와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露盤·覆鉢·寶輪·寶蓋·寶珠 등이 탑의 그것처럼 정확한 구성을 보이지는 않고, 탑과의 상륜부와 석등의 상륜부가 동일한 구성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단정 짓기 어렵다.

Ⅲ. 통일신라 석등의 조형적 특징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의 석등은 약 280여기로, 그 중 완전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약 60여기에 불과하다.¹⁷⁾ 대부분 각 부재의 일부만이 전하는데, 통일신라시대 석등은 약 90여 기이다.¹⁸⁾

<표 1> 통일신라 완형석등 목록

	석등명	전체높이 (=mm)	소재지	비고
1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3,095	경북 영주시	국보 제17호
2	보림사 석등	3,142	전남 장흥군	국보 제44호
3	법주사 사천왕 석등	4,142	충북 보은군	보물 제15호
4	실상사 백장암 석등	2,315	전북 남원시	보물 40호
5	운문사 금당 앞 석등	2,585	경북 청도군	보물 제193호
6	합천 백암리 석등	2,574	경북 합천군	보물 제381호
7	범어사 석등	2,610	부산시 금정구	유형 제16호
8	표충사 석등	2,490	경남 밀양시	유형 제14호
9	법주사 팔상전 앞 석등	2,960	충북 보은군	
10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3,115	경북 경주시	
11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	2,315	경북 경주시	
12	운문사 비로전 앞 석등	2,695	경북 청도군	
13	부석사 삼층석탑 앞 석등	2,400	경북 영주시	
14	화엄사 구층암 석등	-	전남 구례군	
15	법주사 쌍사자 석등	3,151	충북 보은군	국보 제5호
16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2,742	현 국립광주박물관	국보 제103호
17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2,617	경남 합천군	보물 제353호
18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6,148	전남 구례군	국보 제12호
19	실상사 석등	5,080	전북 남원시	보물 제35호
20	개천사지 석등	3,800	전남 담양군	보물 제111호
21	청량사 석등	3,109	경남 합천군	보물 제253호
22	입실 용암리 석등	5,361	전북 입실군	보물 제267호
23	선림원지 석등	2,957	강원도 양양군	보물 제445호
24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앞 석등	2,826	전남 구례군	

그 가운데 재질 차이와 결구방식인 석등의 구조로 인하여 결실되는 예가 많은 상륜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재가 완전히 남아있는 석등을 본 논문의 작품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¹⁷⁾ 이를 통해 선정된 작품대상은 총 24기로, 팔각형 간주석은 14기, 쌍사자형은 3기, 고북형은 6기, 인물형은 1기이다.(<표 1> 참조)

1. 형태에 의한 유형분류

석등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화사석이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 석등의 화사석은 동일하게 팔각형태를 취함으로써, 화사석을 중심으로 유형

17)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34쪽.




18)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348~355쪽.

19) 현재 남아있는 석등 가운데 그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석등의 하대석·상대석, 그리고 화사석의 형태, 간주석의 양식 등인데, 하대석과 상대석의 형태는 동시대의 불상 대좌석에서 보이는 연화대석의 모양과 동일한 양식을 취하는 것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을 분류하면 시대성을 표출하지 못하고, 이와 함께 지역성까지도 무시된다. 반면 통일신라 석등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간주석 부분은 크게 팔각형·쌍사자형·고북형·인물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이를 통한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신라 석등을 간주석의 형태를 중심으로 화사석·옥개석·하대상석의 형태를 통해 그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신라 석등의 시기별 양식 변천까지 살피고자 한다.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간주석 형태는 간주부분이 8각의 형태를 가지는 I 유형, 간주석 부분이 2마리의 사자가 서로의 가슴을 댄 채 앞발과 머리로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쌍사자형의 II 유형, 간주석이 역추형의 윗부분과 편구형의 중간부분, 원추형의 아랫부분을 가져 마치 장고와 같은 모양을 한 고북형의 III 유형, 간주석 부분이 우슬착지를 하고 손에 지물을 들고 공양의 형태를 취하는 인물형의 IV 유형으로 나뉜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다음으로 석등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은 석등의 중심역할을 하는 화사석이다. 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 유형은 팔각 화사석의 4면에 화창이 있고, 그 외 4면은 아무런 외장이 없는 것, B 유형은 팔각 화사석의 4면에 화창이 있고, 그 외 4면은 부조상이 있는 것, C 유형은 팔각 화사석의 8면에 화창

이 있는 것이다.

가 유형	나 유형	다 유형
		

총 24기의 통일신라 석등은 옥개석의 형태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이 된 것은 옥개석 상면의 형태와 연화관, 귀꽃 등이다. 가 유형은 옥개석이 팔각의 형태를 취하고, 상부에 연화관이 표현된 것, 나 유형은 옥개석이 팔각의 형태를 취하는 것, 다 유형은 옥개석이 팔각의 형태를 취하고, 상부에 연화관이 표현되며, 처마의 끝에 귀꽃이 묘사된 것이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유형
				

연판은 크게 단판과 복판으로 나뉘는데 이는 대부분 1단의 연화대를 형성하고, 각 연판의 사이로 간엽이 배치되는 구조이다. 단판은 모엽이 하나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하나의 꽃잎으로 만들어진 모엽 위로, 단엽의 자엽이 올라가기도 한다. 복판은 하나의 꽃잎이 중앙에 있는 절선에 의해 이분된 형태에서 모엽 위로 2개의 자엽이 올라가는 형태이다. 중판은 연판이 2~3중으로 겹쳐진 형태를 뜻한다.

a 유형은 복판으로, 모엽 위로 2개의 자엽이 표현된 것, b 유형은 단판으로, 모엽 위 단엽의 자엽이 표현된 것, c 유형은 단판으로, 단엽의 자엽 위로, 화문이 표현된 것, d 유형은 복판으로, 모엽 위로 2개의 자엽이 표현되고, 판단에 귀꽃이 표현된 것, e 유형은 단판으로 중앙절선을 가지며, 나뭇잎 모양의 엽문이 표현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토대로 이를 유형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통일신라 완형석등의 형태에 의한 분류

	석 등 명	간주석				화사석			옥개석			대석					비고	
		I	II	III	IV	A	B	C	가	나	다	a	b	c	d	e		
1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				○			○			○						IA가a
2	부석사 삼층석탑 앞 석등	○				○			○			○						IA가a
3	화엄사 구층암 석등	○				○			○			○						IA가a
4	표충사 석등	○				○			○			○						IA가a
5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	○				○			○				○					IA가b
6	범어사 석등	○				○				○				○				IA나b
7	실상사 백장암 석등	○				○			○					○				IA나c
8	법주사 팔상전 앞 석등	○				○			○					○				IA나c
9	법주사 사천왕 석등	○					○			○				○				IB다c
10	합천 백암리 석등	○					○			○				○				IB다c
11	보림사 석등	○				○				○						○		IA다d
12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					○	○							○			IB가d
13	운문사 금당 앞 석등	○				○			○								○	IA가e
14	운문사 비로전 앞 석등	○				○			○								○	IA가e
15	법주사 쌍사자 석등		○			○			○						○			IIA가c
16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			○			○					○				IIA나b
17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				○			○				○				IIB다c
18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	○					○						○		IIIA다d
19	선립원지 석등			○	○					○						○		IIIA다d
20	청량사 석등			○			○		○							○		IIIB나d
21	실상사 석등			○				○		○						○		IIIC다d
22	개선사지 석등			○				○		○						○		IIIC다d
23	임실 용암리 석등			○				○		○						○		IIIC다d
24	화엄사 사사자석탑 앞 석등				○	○			○			○						IVA가a

이상의 유형분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I 유형은 화창이 서로 마주보며 ‘+’자형으로 위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에 아무런 조식을 가하지 않거나, 보살상 혹은 사천왕상으로 이를 장엄하는 두 가지 유형만이 나타나는데, 화사석의 8면에 화창을 마련한 유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옥개석은 상면에 아무런 조식을 하지 않거나, 연화관만을 표현하던지 혹은 연화관과 함께 귀꽃이 표현되는 세 가지 유형 모두를 가지며, 연화대석 또한 분류한 5가지 유형이 모두 보인다.

그리고 쌍사자형 간주석의 경우, 화창이 있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부조상을 표현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유형이 보여지나,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화창을 여덟 면에 모두 마련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옥개석은 분류한 3가지 유형이 모두 보인다. 하대석 연관은 단판단엽이거나 연관 위로 화문이 조식된 두 가지 유형만이 보인다.

Ⅲ유형의 화사석은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났으나 화창을 여덟면 전체에 마련한 C유형이 특히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옥개석의 형태는 상면에 연화관을 두는 형태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조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상면에 연화관과 함께 전각의 끝에 귀꽃을 마련한 두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화대석의 형태는 Ⅲ유형의 6점 모두 동일한 형태를 취했는데, 이는 연관의 판단에 귀꽃을 마련한 d유형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작품사례를 분류해 보면, 팔각형의 간주에 화창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아무런 장식을 두지 않고, 팔각 옥개석의 상면에는 연화관이 표현되며, 복판복엽의 연화대석을 가지는 IA가a유형은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부석사 삼층석탑 앞 석등·화엄사 구층암 석등·표충사 석등이 있다. 그 중 상륜부가 결실된 2기의 석등을 제외하고 불국사와 표충사의 것은 포탄형의 상륜부를 가지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은 하대하석을 두지 않고, 지대석 위에 바로 연화대석이 놓이나, 나머지 3기의 석등은 이중대석을 가지는 차이를 보인다.

팔각간주에 화창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아무런 장식을 두지 않고, 옥개석의 상면에는 연화관이 표현되며, 단판단엽의 연화대석을 가지는 IA가b유형은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 한 점에서만 확인되었다. 팔각간주에 화창을 제외한 화사석의 나머지 면에 아무런 장식이 되지 않고, 옥개석의 상면에는 연화관이 표현되며, 단판단엽의 연관 위로 나뭇잎 모양 즉 엽문이 표현되는 IA가e유형은 운문사 금당 앞 석등과 운문사 비로전 앞 석등 등, 운문사 경내의 석등에서만 확인되었다.

팔각 간주석에 화창을 제외한 화사석의 나머지 면에 아무런 장식이 되지 않고, 옥개석의 상면 또한 조식을 두지 않으며, 단판단엽의 연화대석을 가지는 IA나b유형에는 범어사 석등이 있고, 팔각 간주석에 화창을 제외한 화사석의 나머지 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이, 옥개석의 상면 또한 조식을 두지 않고, 단판단엽의 연관 위로 화문을 표현한 IA나c유형은 실상사 백장암 석등과 법주사 팔상전 석등이 있다. 그러나 이 2기의 석등은 동일유형이지만, 연관 내 화문, 상대석, 상대대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팔각 간주석에 화창을 제외한 화사석의 나머지 면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고, 옥개석의 상면에 연화관과 귀꽃을 두며, 연화대석은 판단에 귀꽃을 가지는 IA다d유형은 보림사 석등이 유일하다.

팔각 간주석에 화사석의 화창이 서로 마주보며 ‘十’자형으로 위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에 菩薩像·四天王像이 부조된 유형은 옥개석에 연화관을

두거나 연화관과 함께 전각의 끝에 귀꽃을 함께 두는 두 가지 유형이 보인다. 전자는 화사석의 부조상으로 보살상을 취하며, 하대석 연판의 끝에 귀꽃을 두는 IB가d유형으로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다. 후자는 화사석에 사천왕상이 표현되고 단판단엽의 연판 위로 화문을 장식하는데 이는 IB다c유형으로 범주사 사천왕 석등과 합천 백암리 석등이 있다. 이 2기의 석등 또한, 세부적인 장식수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간주석이 쌍사자형을 취하는 II유형은 화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부조상을 두지 않고, 옥개석에 연화관을 표현하지 않으며, 단판단엽의 연판 위로 화문을 양각으로 조출한 II나c유형의 범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다. 화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부조상을 두지 않고, 옥개석 또한 아무런 조식을 하지 않은 채, 단판단엽의 연판을 가지는 II나b유형의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있다. 그리고 쌍사자형의 간주에 화사석은 화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사천왕상을 표현하고, 연화대석에는 단판단엽의 연판 위로 화문을 표현한 II다c유형에는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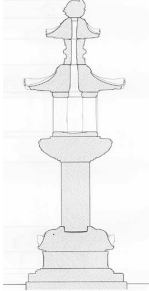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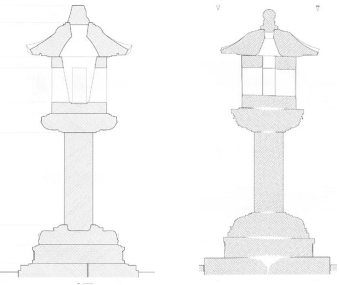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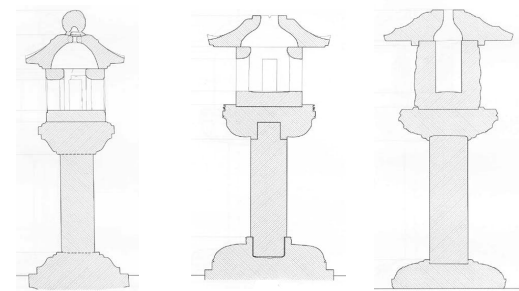
고복형 간주석의 III유형은 화사석이 분류한 3가지 형태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화사석은 화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장식을 두지 않고서, 옥개석의 상면에는 연화관과 귀꽃으로 장식하고, 연화대석의 판단에 귀꽃을 마련한 III다d유형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과 선림원지 석등이 있다. 화장을 제외한 화사석의 나머지 면에 사천왕상을 표현하고, 옥개석의 상면은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고, 복판복엽의 하대석 판단에 귀꽃을 조출한 III나d유형은 청량사 석등이 있다. 그리고 동일 유형으로 3점이 제작된 III다d유형은 화사석의 화창이 여덟 면 모두에 마련되며, 옥개석은 연화관과 귀꽃을 모두 가지고, 연판의 판단에 귀꽃을 표현한 형태로서, 개선사지·임실 용암리·실상사 석등 등이 해당된다.

2. 결구방식의 특징

석등의 결구방식에 대한 조사²⁰⁾는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어, 그 결과가 보고서로 발간되었는데, 그 중 통일신라 석등의 결구방식을 알 수 있는 사례는 총 15기이다. 이를 토대로 八角形·雙獅子形·鼓腹形·人物形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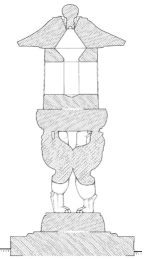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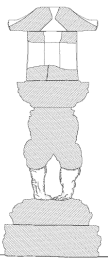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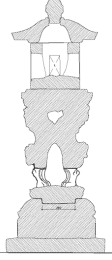
²⁰⁾ 1992년부터 1999년까지 國家指定 12건, 地方指定 15건, 非指定 17건의 八角形 간주석에 대한 조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져, 1999년에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蓮蕊形·雙獅子形·人物形 석등에 대한 조사는 1992년부터 2001년에 걸쳐 총 30기의 석등이 조사되어 2001년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본 논문의 결구방식에 대한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성과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등의 결구방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팔각형 석등의 결구방식 유형을 나누자면, 가장 큰 속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옥개석의 연기구멍 형태이다. 석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등의 공양으로, 등의 연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기구멍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면 하대석의 결구방식과 상륜부의 결구방식에서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p>보림사 석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 연기구멍이 직선 ■ 지대석, 하대석이 별석 ■ 상륜부가 받침대 위로 얹혀지는 형태
 <p>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p> <p>법주사 사천왕 석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의 연기구멍이 상·하부로 나뉘는데, 사다리꼴 형태로 상부는 윗면이 넓고, 하부는 아랫면이 넓은 형태 ■ 지대석과 하대석이 별석으로, 하대석은 하대하석과 하대상석도 별석임 ■ 상륜부를 옥개석의 연기구멍에 끼우도록 제작됨
 <p>운문사 금당 앞 석등</p> <p>실상사 백장암 석등</p> <p>합천 백암리 석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의 연기구멍이 상·하부로 나뉘는데, 하부는 반구형이고 상부는 직선인 형태 ■ 지대석과 하대석이 통석으로, 하대하석을 가지지 않는 형태 ■ 상륜부를 옥개석 상부에 끼우도록 제작됨 ■ 간주석이 축을 가져 상·하대석에 끼우도록 제작된 형태

<그림 2> 팔각형 석등의 결구방식 형태에 의한 분류

팔각간주석 석등의 첫 번째 결구방식은 보림사 석등으로, 옥개석의 연기구멍이 직선형으로 이는 단 1기의 사례가 확인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연기구멍이 중간에 꺾여져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부는 아랫부분이 넓은 사다리꼴이며, 상부는 윗부분이 넓은 사다리꼴형태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법주사 사천왕 석등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연기구멍이 꺾여져 두 부분으로 나뉘며, 하부는 옆어진 모양의 반구형이고, 상부는 직선형의 구조인 운문사 금당 앞 석등, 실상사 백장암, 합천 백암리 석등이 있다.

 <p>법주사 쌍사자 석등</p>	 <p>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의 연기구멍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부는 사다리꼴형이고 상부는 역사다리꼴 모양인 형태 ■ 하대하석과 하대상석이 별석으로 구성됨 ■ 화사석의 연기구멍이 역사다리꼴이며, 하면의 너비가 화창의 폭과 비슷함
 <p>중흥산성 쌍사자 석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의 연기구멍이 두부분으로 분절되는데 하부는 반구형이고 상부는 직사각형인 형태 ■ 하대하석, 하대상석이 통석으로 제작 ■ 쌍사자형의 간주석이 연화대로 만들어진 간주석 받침과 상대석과 함께 통석으로 제작 ■ 화사석의 연기구멍이 화창의 폭보다 그 너비를 넓게 조성

<그림 3> 쌍사자형 석등의 결구방식 형태에 의한 분류

다음은 쌍사자형 석등의 결구방식으로 법주사 쌍사자 석등과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이 있는데, 이는 별석으로 이루어진 하대상석과 하대하석, 간주석과 상·하대석의 결합방식, 화사석의 내부구조, 옥개석 중앙부에 마련된 연기구멍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유일하게 1기의 사례만이 확인되므로 그 결구방식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고북형 석등은 총 6기로 모두 조사에 의해 결구방식이 밝혀졌는데, 3가지로 분리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의 연기구멍이 원추형인 구조로, 구멍은 옥개석 상부까지 관통하지 못함 ■ 간주석은 통석으로 제작하고, 상·하대석과 중첩되는 구조
합천 청량사 석등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실상사 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의 연기구멍을 마련하지 않은 형태 ■ 하대하석 하대상석이 별석으로 조성 ■ 간주석은 통석으로 제작하고, 상·하대석과 중첩되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이 고복형의 연기구멍을 가지며, 별석의 연화관의 저부에 홈을 내어 연기구멍을 마련하나 연기가 상륜부까지 연결되지 못함 ■ 간주석은 통석으로 제작하고, 상·하대석과 중첩되는 구조
임실 용암리 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이 고복형의 연기구멍을 가지며, 별석의 연화관의 저부에 홈을 내어 연기구멍을 마련하나 연기가 상륜부까지 연결되지 못함 ■ 간주석은 통석으로 제작하고, 상·하대석과 중첩되는 구조

<그림 4> 고복형 석등의 결구방식 형태에 의한 분류유형

1 유형	<p>화엄사 사사자석탑 앞 인물형 석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개석의 연기구멍이 세장한 원추형 구조 ■ 제대석에서부터 간주석까지 하나의 돌로 이루어짐 ■ 화사석의 내부공간이 '十'자형으로 연기구멍의 폭이 화창의 크기와 동일함
---------	---------------------------	---

<그림 5> 인물형 석등의 결구방식 유형



<그림 6> 범주사 석조여래좌상



<그림 7>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인물형석등은 <화엄사 사사자석탑 앞 석등>이 유일한데, 이는 지대석을 두 개의 판석으로 조합하고 있다. 하대석은 하대하석과 하대상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대석과 인물형 간주석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다. 상대석은 상대하석과 상대상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각기 별석으로 조성되었다. 화사석은 내부공간을 ‘+’자형으로 마련해두고 있는데, 상부의 연기구멍은 화창의 폭과 동일하다. 옥개석은 저면받침과 연화관까지 통석으로 제작하였으며, 상륜부는 하나의 돌이다.

3. 시기별 양식변천

대부분 절대연대를 가지지 않는 석등은 그 조형변화를 살피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공양을 위한 중심역할을 하는 화사석은 통일신라 석등 전체가 팔각형을 취하고, 고려시대가 되면 방형, 6각형, 부등변 팔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된다. 그리하여 화사석을 기준으로 석등의 조형을 살피면 지역성과 함께 시대성이 동시에 무시된다.

그런데 동시대의 건축·조각·회화·공예 등은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상호 연관되어 발전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동일 재질과 종류의 작품이 그러하다. 석조물에서의 이러한 상호연관성은 석탑을 제외한 통일신라시대의 석등·불상대좌석·승탑 기단부 등에서 확인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三段八角臺座로서 이는 연화대좌이면서도 팔각²¹⁾의 형태를 가지는 팔각대좌이기도 하

²¹⁾ 팔각은 곧, 八角堂과 같은 것으로 팔각당은 대개 아미타나 관음의 전당이며, 八角八稜이란 본래 아미타의 三昧耶八로부터 출발 한 것인데, 팔각당을 圓堂이라 칭함은 팔각이 거의 원형



<그림 8>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變상도(754~755)

다. 이 구조는 8세기 중반부터 불상의 대좌로서 등장하여, 건축적인 면과 함께 장식성을 통한 조각적인 측면이 가미되어 9세기 대의 다양한 석조물에서 유행·발전하였다. 불상양식을 통해 대부분 연대가 고증된 총 25구의 석조불상대좌와 탑비를 통한 절대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총 13기의 승탑의 기단부는 석등의 조형변화와 그 조성시기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단팔각구조는 8세기 중반에는 지대석과 하대석이 단층의 구조이나, 법주사 석조여래좌상(그림 6)을 비롯한 9세기 중반부터의 불상에서는 하대하석을 둔 이중구조가 나타난다. 그리고 9세기 중반부터 귀꽃이 등장하는데,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그림 7)을 시작으로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홍천 물걸리 석조대좌·광배, 영천 화남동 석조여래좌상·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조비로자나불좌상·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암제 비로자나불좌상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단순히 부재의 상면 혹은 하면에 낮은 단을 형성하여 접합부분을 마감하던 것이 9세기 후반부터는 괴임대를 형성함으로써 단의 차를 크게 두기 시작한다.





석등의 조형변천과 제작시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동시대의 삼단팔각구조를 통해 그 기준을 마련해 보겠다. 비교작품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754~755)(그림 8)·대좌의 사리공에서 永泰二年銘 납석제 사리호가 발견되면서 그 제작시기가 766년으로 밝혀져 통일신라 최초의 지권인

이기 때문에 원과 팔각은 동일하다.(홍대한, 1998, 『통일신라 하대 석불대좌 양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비로자나불로 밝혀진 석남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상의 왼쪽 팔뚝에 명문이 새겨져 그 조성연대가 865년으로 추정되는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동화사 비로암 앞의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납석제 사리호의 조상기를 통해 863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은 절대연대를 가지어 양식변천을 살피는데 기준작이 된다. 그리고 연화대석에 표현된 귀꽃 형태, 상대석 보상화문의 형태·연판 내 화문 등이 통일신라 불상 3단 연화대좌의 양식변천을 살피는데 바탕이 된다.²²⁾

우선, 연화대석의 연판 내 표현되는 화문의 출현시기이다. 불상의 대좌에서 화문이 처음 표현되는 것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754~755)>에서부터이며, 연화문이 복판복엽의 연판 위로 별도로 제작되어 얹혀진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9세기 전반의 광주 약사암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용장계 석조약사불좌상 등 석불과 석등을 막론한 모든 석조물에서 단판단엽의 연판 위로 위치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형태상의 차이는 하나의 석재로 연판과 연화문을 표현하려면 두 도상의 중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복판복엽의 연판을 대신해 단판단엽의 연판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8세기 중엽부터 표현된 연화문은 석재라는 재질로 인하여 연화문을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자 변형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석등에서 연화문이 확인되는 것은 총 6기이다. 1기의 연화문은 연자가 원형으로 크게 표현되고, 이를 둘러싼 12엽의 지방이 작은 원형으로 불록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3기에는 원형의 연자가 작아지고 4~6엽의 연잎을 가지는 형태로 변화한다. 또한 법주사의 것처럼 연화문을 둘러싸고 또 다른 장엄이 행해지기도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1. 법주사 쌍사자	2. 실상사 백장암	3. 합천 영암사지	4. 법주사 사천왕

<그림 9> 통일신라 석등의 연화문 양식

²²⁾ 그러나 연화대좌의 연판은 3단팔각의 대좌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표현되었고, 연판의 표현은 대좌의 재질이나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경주 이외의 지역 등 지역적인 차이, 조각장의 수준에 의한 차이에 의한 것으로 시대성을 가지어 양식변천을 살피는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귀꽃으로, 9세기 중반부터 표현되기 시작한 귀꽃은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는 삼산형의 형태에 판단의 끝에서 줄기 부분부터 시작하여 수직상승하는 형태를 취하다가, 9세기 후반부터는 귀꽃이 판단에서 줄기부분 없이 수직형으로 위치하며, 삼각형태·고사리형태 등 귀꽃의 모양이 다양해진다.

통일신라 3단팔각 연화대좌석 귀꽃 양식변천				
9세기 중반	9세기 후반		9세기 말기	
판단의 수직상승형 삼산형태	판단의 수직형 삼각형태	판단의 반수직형 고사리형태	판단의 반일치형 고사리형태	판단의 일치형 고사리형태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865)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각연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광배	영천 화남동 석조여래좌상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삼암계 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말기부터는 연판에 반일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경북대학교 박물관 사암계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이르러서는 연판과 일치하여 조금의 양감을 주어 묘사된다.

석등 연화대석의 귀꽃 양식변천		
제 1단계	제 2단계	제 3단계
연판의 끝에서 수직상승 삼산형	연판의 끝에서 수직상승·수직 삼산형·고사리형 귀꽃의 두께가 얇아짐	연판의 끝에서 수직상승·수직 삼산형·고사리형 귀꽃의 두께가 둔중해지고 능각의 1/2 이상 연결 됨
		
개선사지 석등(868) 보림사 석등(870년경)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청량사 석등 실상사 석등	임실 용암리 석등 선림원지 석등

석등 하대석에서 귀꽃을 가지는 예는 총 8기로, 모두 3기에서 확인된다. 그 중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개선사지 석등과 함께 보림사 석등,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이 첫단계이다. 그 형태는 연판의 끝에서 수직상승하는 형태로 삼산형의 형태를 보인다. 이후 연판의 끝에서 수직상승하거나 수직으로 조성되며, 삼산형과 고사리형이 동시에 나타나고 귀꽃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제 2 단계로 설정하였고,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청량사 석등, 실상사 석등 등이다. 마지막 단계는 연판의 끝에서 수직상승하거나 수직의 형태로 조성되며, 삼산형과 고사리형이 동시에 나타나고, 귀꽃의 두께가 둔중해지고 능각의 1/2 이상과 귀꽃이 연결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삼았다. 임실 용암리 석등과 선림원지석등이 이에 해당된다. 불상의 귀꽃을 토대로 통일시라 석등의 귀꽃은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3단팔각 연화대좌석 보상화문의 양식변천					
8세기 중반	9세기 초반	9세기 중반	9세기 후반	9세기 말기	
단순연판 연판의 3/4 정도 차지 단순한 형태	이중연판 연판의 3/4 정도 차지 연판 내 2중 보상화문	이중연판 연판의 2/3 정도 차지 양감을 준 장식적인 형태	이중연판 양감이 줄어든 연판 위로 꽃술을 표현한 보상화문	이중연판 연판·보상화문의 양감이 줄고 마치 선각화되는 듯한 표현	이중연판 연판·보상화문이 인화문의 형태로 표현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754~755)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비로자나불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광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서혈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영천 화남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 일산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다음은 상대석에 표현된 보상화문으로, 불상의 대좌에 최초로 보상화문이 표현된 것은 감산사지 석조미륵보살입상(719)이다. 이후 3단 팔각 연화대좌석에서는 최초로 확인되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에서부터 10세기 초반의 원주 일산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이르기까지 불상대좌의 상대

석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8세기 중반에는 단순연판에 연판의 3/4정도를 차지하며, 1줄의 선으로 표현된 단순한 형태를 취하다가, 9세기 초반이 되면 이중 연판에 연판 내 2중으로 보상화문을 표현한다.

9세기 중반이 되면 이중의 연판에 연판의 2/3정도를 보상화문이 차지하며, 도식적이면서도 양감을 준 장식적인 형태로 변화된다. 이후 9세기 후반이 되면, 양감이 줄어들어 연판 위로 꽃술을 표현하며, 몇 개의 잎을 연결시킨 단순한 형태로 변화되며, 9세기 말기가 되면 연판과 보상화문의 양감이 동시에 줄어들고 그 묘사에 있어서도 생동감을 잃고 정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후 연판과 보상화문이 마치 인화문의 형태로 도식화되어 생동감을 잃게 된다.

불상대좌에서의 보상화문이 8세기 중반부터 등장하여 9세기 중반에 그 표현이 가장 정형화되는데, 절대연대를 가지는 개선사지 석등을 제외하면, 청량사와 보림사 석등의 보상화문은 꽃술을 표현한 9세기 후반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승탑기단부 가운데 석남사 승탑과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은 간주석 부분이 고복형 간주석의 중단부분과 동일하여 주목된다. 석남사 낭공대사탑(917)은 8각 편구형의 간주석의 각 측면마다 안상을 표현하고, 안상 내부에 2줄의 띠 위로 1개의 화문 배치한 형태이고,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923)은 편구형의 간주석의 내부중앙에 2줄의 띠를 돌리고, 그 위로 8개의 화문을 배치시킨 형태이다.

석남사 낭공대사탑(917)	봉림사 진경대사 보월능공탑(923)
	
<p>8각 편구형의 간주 각 측면마다 안상을 표현 안상 내부에 2줄의 띠 위로 1개의 화문 배치</p>	<p>편구형의 간주 내부중앙에 2줄의 띠, 그 위로 8개의 화문</p>

<그림 10> 통일신라 승탑기단부의 양식

9세기 중반에 조성된 개선사지 석등을 필두로 등장한 고복형 석등은 개선사지 석등의 간주석의 편구부분이 후보된 것을 감안하여 간주석의 상·중·하단의 구성을 토대로 이를 원추형하단과 역원추형 상단을 가지는 형태가 가장 선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편구형의 중단에 2줄의 띠를 돌리고 그 위로 화문을 배치한 것을 제 1단계로 설정하였고, 제 2단계는 그러한 형태에서 원통형으로 간주석부분이 변화되고 중단의 양식이 내부중앙에 2줄의 띠와 함께 그 아래 위로 연화문을 조식한 것을 이에 해당된다.

통일신라 석등 간주석의 편구형 중단의 양식변천				
1단계			2단계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청량사 석등	실상사 석등	임실 용암리 석등	선림원지 석등

<그림 11> 통일신라 석등 간주석의 편구형 중단의 양식변천

통일신라 승탑 가운데 고복형 간주석의 편구형을 가지는 예는 위의 두기가 유일한데, 이는 모두 10세기 초의 것이다. 그러나 편구형의 형태가 팔각으로 변화되고 그 내부에 안상을 장식하는 것과 원형대의 편구 형태는 석등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석등의 편구형 중단은 승탑의 10세기 초반보다는 앞선 9세기 후반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석탑과 석불대좌·승탑·석등에서 보이는 괴임대는 상대석과 한돌로 구성되어 조성된 것과 별개의 석재로 괴임대를 형성한 것으로 2가지 형식이 공존한다. 그 가운데 별석받침을 사용한 것은 9세기 전기의 석탑인 경주 남산리 동삼층석탑으로 초기에는 1매의 별석을 탑신에 삽입한 형태에서 시작되어 범광사지 3층석탑과 같은 굽형괴임대의 형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굽형괴임대 형식의 받침은 별석이 아니라 상대갑석과 같은 돌로 구성되어 있다. 석조물의 괴임대는 간주석받침·탑신부 받침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석조물의 높이를 높여주어 결과적으로 조형물의 크기를 높이는 현상을 초래한다. 괴임대의 첫 출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이를 미루어 보아 그 발생은 9세기 중반 이전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 등을 비롯한 후기의 불상에서 집중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9세기 후반에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³⁾

23) 박경식, 앞의 책, 295쪽.

굽형괴임대가 확인되는 석등은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을 비롯하여,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청량사 석등·선림원지 석등·임실 용암리 석등 등에서 나타나는데, 청량사 석등은 굽형괴임대를 사용하고, 화엄사와 선림원지 석등은 권운문대의 상면에 굽형받침대를 조성한 구조, 임실 용암리 석등은 각형 1단의 받침 이에 권운문대를 마련한 형태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괴임대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명문을 기록하고 있는 불상을 비롯하여, 쌍봉사 철감선사탑, 선림원지 승탑 등 모두 함통연간(860~874)에 조성된 것이다. 즉 이를 고려한다면, 괴임대를 가지는 일반형 석등과 고복형 석등은 9세기 후반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대의 석탑·불상대좌석·승탑 기단부 등을 통해 통일신라 석등의 시기구분과 양식변천(표 3, 4, 4-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기는 완형석등으로는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이중층단의 지대석을 가지고 하대석이 단층으로 제작된다. 화사부와 기단부의 높이비례는 1:1.3이다. 연화대석은 반전이 없고, 상면에서 시작된 능각이 하면에 이를 때 급격히 하강하여, 더욱 팽팽함을 가진다. 연화대석받침, 간주석받침, 상대석 저면받침, 화사석받침이 1~2단의 호·각형으로 조성된다. 옥개석은 곡선의 전각이 아닌 사선의 대각선이다. 이 시기의 결구방식은 토기의 투공구조와 같은 X형태로 연기구멍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각 부재는 접합시키는 결합방식을 보이나, 상륜부는 옥개석에 마련된 투공에 끼우는 구조이다. 현재 완형으로 팔각 간주석의 석등이 남아있지 않으나, 이는 간주석이 결합구조를 가졌을 것이다.

제 2기는 완형석등으로는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과 극락전 석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기단부의 길이가 화사부에 비해 길어지며, 화사부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러나 1기에서 보였던 연화대석의 팽팽한 형태와 옥개석의 전각, 전각에서의 약간의 반전 등은 앞 시기의 것을 계승한다. 간주석받침, 상대석 저면받침, 화사석받침이 2단의 호·각형으로 조성되며, 1단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옥개석의 전각은 1기와 동일하게 사선이다. 이 시기의 결구방식은 연기구멍의 구조가 조사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포탄형의 보주가 끼워진 것으로 보아 1기와 동일한 연기구멍 형태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대석과 하대석이 통석이며, 팔각 간주석의 특성상 기단부는 결합식을 취하고, 화사석과 옥개석은 접합식을 취한다. 상륜부는 결합식이다.

제 3기는 완형석등으로 보림사 석등·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청량사 석등·개천사지 석등·중흥산성 쌍사자 석등·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부석사 삼

층석탑 앞 석등·운문사 금당 앞 석등·운문사 비로전 앞 석등·실상사 백장암 석등·법주사 팔상전 앞 석등·합천 백암리 석등·합천 영암사지 석등·선림원 지 석등·임실 용암리 석등·실상사 석등이 해당한다.

이 시기는 이형석등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팔각 간주석 유형은 하대하석이 등장하며, 그 폭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앞 시기에 비해서 하대상석인 연화대석의 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대하석에는 안상이 음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고, 연화대석에는 귀꽃, 화문, 보상화문 등의 장식문양이 등장한다. 화사석에는 부조상으로 화창 외면의 공간을 장식하기 시작하는데,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에는 보살입상이 표현되며, 청량사 석등에는 사천왕상이 표현된다. 옥개석에 귀꽃을 표현하는데 추녀마루에 우동을 설치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 보인다.

이형석등에서는 또다시 쌍사자형이 제작되는데,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그것이다. 이는 1기에서 보이지 않던 하대하석의 안상표현이라든지 확연히 줄어든 하대하석의 폭이 확인된다. 연화대석의 능선은 이전의 팽팽함을 잃어 생동감이 줄어들었고, 연판의 위로 장식문양을 둔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고복형 석등이 등장하는데, 고복형 간주석은 기존의 다른 유형의 석등에서 등장한 안상, 연화대석의 연판 위 장식문양,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하대하석의 폭, 화사석 외면의 부조상, 옥개석의 연화관과 귀꽃의 표현 등이 복합되어 가장 이른 시기의 것도 매우 장식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리고 연화대석받침, 간주석받침, 상대석 저면받침, 화사석받침이 2~3단의 호·각형으로 더욱 중첩된 경향을 보이며, 권운문대와 굽형의 괴임대를 둔 특이한 형태의 받침대가 등장한다.

이 시기의 결구방식은 1기의 연기구멍 형태와 함께 ㄷ자형이 팔각형과 쌍사자형을 중심으로 제작된다. 고복형의 연기구멍은 기존의 팔각과 쌍사자의 석등에서 보이지 않던 형태로 제작되는데, 옥개석에 연기구멍을 두지 않거나, 고갈형 혹은 표주박형으로 제작된다. 쌍사자형은 상, 하대석과 간주석이 통석으로 제작되지 않고, 상대석과 간주석이 통석이거나 하대석과 간주석이 통석인 구조를 가진다. 화사석과 옥개석은 접합형식이나, 露盤·覆鉢·寶輪·寶蓋·寶珠의 구성을 가진 상륜부가 제작되면서 옥개석의 연기구멍에 끼우는 구조가 아닌 접합식 결합구조를 보인다.

제 4기는 완형석등으로 화엄사 구층암 석등·범어사 석등·표충사 석등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이전의 이형석등의 제작은 중단되고, 팔각형 간주석만이 조성된다. 팔각 간주석 석등은 전체적으로 그 조형이 퇴화되어 하대석의 높이가 줄어들었고, 형식적으로 하대하석을 두거나 생략시킨다. 연화대석은 연판의 크기

가 줄어들고, 모엽과 자엽의 구분은 희미하며 연판 내에서 자엽의 비율이 축소되기도 한다. 그리고 하대상석의 연화대석에 비해 상대석의 연화대석이 둔중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화사석은 매우 축소되어 그 기능을 잃은 듯하고, 화창의 크기 또한 축소된다. 연화대석받침, 간주석받침, 상대석 저면받침, 화사석받침은 양식적 퇴화로 인해 호·각형으로 1~2단만이 조출된다. 이 시기의 결구방식 또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팔각의 간주는 상, 하대석에 끼우는 형태이고, 나머지 부재는 접합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상륜부는 옥개석의 연기 구멍에 끼우거나 상면에 접합시키는 2가지로 3기에서와 같이 다양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통일신라 완형석등의 시기별 조형변천

석등부재		1기	2기	3기	4기
기 단 부	지대석	-팔각 -이중구조	-팔각, 방형 -단층구조	-팔각, 방형 -단층구조	-방형 -단층구조
	하대하석	無	無	-하대하석 등장 -(하대상석에 비해) 폭이 넓음 -안상 표현	-하대상석 폭과 비슷 -높이가 낮아짐 -생략되기도 함
	하대상석 (연화대석)	-단판단엽, 복판복엽 -화문 장식 -팽팽한 능가	-단판단엽, 복판복엽 -판단의 반전으로 능가 이 볼륨을 가짐 -모엽과 자엽이 불룩한 형태	-단판단엽, 복판복엽 -판단의 반전이 커짐 -귀꽃, 엽문 등이 장식 -모엽과 자엽의 표현이 점 차 선각화 됨	-단판단엽, 복판복엽 -판단의 반전이 줄 -모엽과 자엽의 구분 모호
	간주석	-팔각 -쌍사자:z자형	-팔각	-팔각:(이중대석 등장) 길이 짧아짐 -쌍사자:두부와 흉부를 접 합시킴 -고복형 등장, 유행	-팔각:(대석의 단층구 조) 길이가 길어짐 -이형석등의 제작이 줄 어듸
	받침대	-호각형의 1~2단구조	-호각형의 2단구조	-호각형의 2~3단구조 -굽형, 권운문의 괴임대 출현	-호각형의 1~2단구조 혹은 생략
화사석	-‘+’자형 구조의 화창	-‘+’자형 구조의 화창	-‘+’자형 구조의 화창 -외면에 부조상 장엄 -8면에 화창 마련	-‘+’자형 구조의 화창	
옥개석	-상면에 연화관 표현	-상면에 연화관 표현	-상면에 연화관 표현하거나 생략 됨 -전각의 끝에 귀꽃 표현 -추너마루에 우동설치	-상면에 연화관 표현하 거나 생략 됨 -전각의 끝에 귀꽃 표현	
상륜부	-보주형, 포단형	-보주형, 포단형	-보주형, 포단형 -탑상륜부식 형태 등장	-보주형, 포단형 -탑상륜부식 형태 등장	
결 구	지대석 -하대석	-별석	-별석, 통석	-별석, 통석	-별석, 통석

석등부재		1기	2기	3기	4기
방식	간주석	-팔각:축을 상,하대석에 끼움 -쌍사자:상,하대석과 통석	-팔각:축을 상,하대석에 끼움	-팔각:축을 상,하대석에 끼움 -쌍사자:상,하대석과 부분 통석 -고북형:접합식 구조	-팔각:축을 상,하대석에 끼움
	연기구멍 형태	-팔각, 쌍사자: X자형	-팔각: X자형	-팔각, 쌍사자: X자형 -고북형: 생략 혹은 고갈형, 표주박형	-팔각: X자형
	상륜부	-옥개석에 끼우는 구조	-옥개석에 끼우는 구조	-보주, 포탄형: 옥개석에 끼우는 구조 -탑상륜부: 식형: 접합식	-보주, 포탄형: 옥개석에 끼우는 구조 -탑상륜부: 식형: 접합식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시기별 조형특징은 1기에서 보인 석등의 조형이 2기까지 점차 발전하다가, 3기에 이르면 보다 장식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됨을 알 수 있다. 이후 급격한 도식화와 퇴화과정을 거치어 점차 변형을 보이다가 제 4기에 이르면 형식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이전시기의 장식적인 면이 감소된다. 특히, 이형석등은 제 3~4기에서 활발히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IV. 통일신라 석등조성과 공양의례

1. 고대 불교의식과 공양의례

고대의 한반도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통해 전래되면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은 이를 왕실에 의해 수용하고, 국가종교로 공인하였다. 불교가 수용·전래되면서 불교의 의식과 의례는 자연스럽게 발전하였고, 우리는 한반도의 고대 불교의례와 의식에 대한 기록을 『三國遺事』·『三國史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의식의 대부분은 약 10여 건에 이르는 신라의 것으로, 신라의 국가적 불교의식으로는 통일 전 진흥왕대에 행해진 ‘百高座會(百座講會)’가 있으며, 통일 후의 의식으로는 ‘八關會’와 밀교적인 신앙에 의한 ‘文豆婁秘法’, 『三國遺事』권 제3 탑상 제4 『五臺山萬眞身』條에 기록된 화엄경을 轉讀하는 법회, 占察法會, 帝釋天·龍神·彌勒·彌陀·觀音 등 제 유형의 불교 신앙에 의한 것들이다.

<표 5> 문헌에 기록된 고대 한반도의 불교의식

	의식	거행된 해	거행방법	거행된 장소
1	팔관회	진흥왕 33년(572) 10월 20~27일	팔관연회	바깥의 절
2	인왕백고좌회	진평왕 35년(613)	불경을 강설	皇龍寺
3		선덕왕 5년(636)	인왕경 강론	皇龍寺
4		혜공왕 15년(779)		
5		현강왕 2년(876)	불경을 강설	
6		현강왕 12년(정강왕 원년, 886)	불경을 강설	皇龍寺
7		정강왕 2년(진성왕 원년, 887)		皇龍寺
8		진성왕		皇龍寺
9		경애왕 2년(924) 2월 19일	불경 풀이	皇龍寺
10		연등회	경문왕대(866) 1월 15일	연회
11	진성왕 4년(890)		연등 구경	皇龍寺
12	문두루비법	문무왕(669)	문두루비법	四天王寺
13	낙성회	명랑법사 생존시(7세기 중·후반)		金剛寺
14		자장법사 졸년(658)	<華嚴經>1만偈 강론	元寧寺
15		효소왕 8년 丁酉년(697)		望德寺
16	과중법회	헌덕대왕대(809~825)		俗離山
17	점찰법회	원효 사후(686 이후)	원효 사후 매년 3월 14일	道場寺
18		진표율사 생존시(8세기 중반)		高城郡 皆骨山
19		진평왕대(579~632)	매년 봄가을 10일간	安興寺
20	육륜회	신문왕대(681~692)		興輪寺

삼국시대의 불교는 국가의 왕권과 관련하여 지배층에 의해 발전하였기 때문에 의례는 왕실과 지배층에 의해 행해졌고, 의식 역시 국가적으로 거행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황룡사에서의 仁王經法會²⁴⁾, 四天王寺에서 행해진 文豆婁秘密之法²⁵⁾, 그리고 궁중이나 사찰에서 행해졌던 八關齋法²⁶⁾ 등 왕실에 의해 행해지는 의식들 뿐만 아니라, 일반신도들에 의

24) 인왕백고좌회는 동아시아 불교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불교의식으로, 이 의식의 소의경전은 『仁王經』인데, 이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호국경전’으로 간주되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왕실에 의해 행해지며 전승되었다.

25) 문두루비밀지법은 그 거행시기와 목적, 방법 등이 『三國遺事』卷 第二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6) 八關이란 원래 수행자들이 옳은 행동을 하도록 규정한 8가지 불교 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경전에서 그 계율을 설하고 있다. 이는 세속이나 내세에서의 행복 기원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로서의 역할로 요약되는데, 대개 한국의 고대에는 봄에 연등회가 행해지고 가을에 팔

해서도 齋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예로는 占察法會·落成會·大會·福會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식들은 왕실에 의해 주최되기도 하였지만,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일반신도들에 의해 거행되기도 하였다.

즉, 불교의 대중화로 인하여 의식의 주체와 의례행위 등이 보다 다양해지는 데,²⁷⁾ 이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성행한 삼국시대의 彌勒信仰과는 달리 기층민들의 회구에 부응할 수 있는 彌陀淨土信仰이 전쟁으로 인해 혼란한 옛 고구려·백제지역의 유민과 신라인들에게 死後 안락한 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며 호소력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원효와 의상에 의해 형성된 교단은 불교의 대중화운동을 진행하면서 불교를 전국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불교의례와 의식은 비단 왕실과 귀족계급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라는 국가 전체에 깊이 자리잡게 된다.

불교의 대중화·전국화 현상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절로 삼거나,²⁸⁾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사찰을 조영²⁹⁾하는 등 사찰 창건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사찰공간을 이용하게 되어, 사찰에서는 비단 왕실이나 귀족이 행한 의례나 국가적 의식만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의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삼국유사』의 곳곳에서 拜禮行爲³⁰⁾, 繞匝行爲³¹⁾, 염불·기도·공양행위 등으로 확인된다.

관회가 행해졌다.

27) 신라불교는 중고 이래의 전통을 기반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를 흡수·통합하여 새로운 단계의 불교사상을 정리해 가야하는 과제와 통일 이전의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던 불교를 확대된 지방사회와 사회전체의 기층민에게까지 폭넓게 이해시켜야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28) 『三國遺事』卷 第五 孝善 第九 「貧女養母」條의 兩尊寺, 「孫順理兒興德王代」의 弘孝寺, 『三國遺事』卷 第五 感通 第七 「郁面婢念佛西昇」의 法王寺, 神呪 第六 「明朗神印」의 金光寺, 卷 第四 義解 第五 「元曉不羈」의 初開寺, 「慈藏定律」의 元寧寺, 卷 第三 塔像 第四 「有德寺」의 有德寺, 「明朗神印」條의 金光寺, 「五臺山月精寺五類聖衆」條의 孝家院, 「敏藏寺」條의 明藏寺 등이 있다.

29) 『三國遺事』卷 第五 感通 第七 「郁面婢念佛西昇」에서 경덕왕대 康州의 남자신도 수십명이 극락세계를 구하며 彌陀寺를 조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30) 拜禮行爲는 부처 앞에서 땅바닥에 몸을 던져 예불을 드리거나 간청을 하는 행위로서, 이마·양무릎·양 팔꿈치를 땅에 댄 채, 엎드려 절하는 五體投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오체투지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절을 드리는 상대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몸동작으로서, 고대에도 배례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집안지역의 고구려 벽화고분인 長川 1호분(도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三國遺事』의 기록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첫번째는 眞智王(신라 제25대왕, 재위기간은 576~579)대의 일로서, 眞慈란 승려가 水源寺로 향하는 길에 '행하는 열흘 동안 한 걸음마다 한 번씩 절하였다.'(卷 第三 塔像 第四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條 '行十日程 一步一禮'라는 기

供養行爲는 산스크리트어 Pujana의 譯語로, 供施·供給이라고도 번역되며, 줄여서 供이라고도 한다. 원래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동물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供犧로서,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피우며 꽃과 물 등을 바치고 등불을 켜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이란 佛·法·僧의 三寶나 死者의 영혼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승려나 승단에 제물을 베풀거나 불탑 또는 불당 등을 세우는 일, 혹은 독경과 예불을 함으로써 崇敬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공양행위는 신라시대부터 6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六法

록과 景德王(신라 제35대왕, 재위기간은 742~765)대에 ‘바람이 불어 종이 울리면 둘러선 스님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니 머리가 땅에 닿았다.’(卷 第三 塔像 第四 『四佛山攝佛山萬佛山』條 ‘有風而鐘鳴 旋遶僧皆仆拜至地’)라는 기록, 세 번째는 경덕왕대의 眞表의 일로서 ‘처음에 7일을 기약하고 五輪 즉, 五體를 돌에 부딪혀 무릎과 팔이 모두 부서지고 바위절벽이 피로 물들었다.’(卷 第四 義解 第五 『眞表傳簡』條 ‘初以七宵爲期 五輪撲石 膝腕俱碎 雨血岳崖’)고 하여 온 몸을 버려 참회하는 亡身慙悔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라승 心地에 대한 기록에서도 ‘불당을 향해 예를 올리니 팔뚝과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 진표율사가 仙溪山에서 한 것과 같은 것이다.’(卷 第四 義解 第五 『心地繼祖』條 ‘向堂潛禮 肘額俱血 類表公之仙溪山’)라고 하여 오체투지의 배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31) 繞匝行爲는 고대 인도의 풍습이 불교의 의례로 계승된 것인데, 이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 주위를 돌면서 지나가는 인도의 풍속이 불교에 도입되어 고대의 불전이나 불당에서 시계방향으로 세 번 도는 행위로 이어진 것이다.

문헌에서 기록하는 요잡의례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淨神大王의 太子 寶川은 慈藏法師과 같은 시대인 7세기 초·중반기의 인물로, 그는 神聖窟에서 ‘가지고 있는 석장이 하루 세 번 소리를 내며 방을 세 바퀴 돌아다녔다.’(卷 第三 塔像 第四 『臺山五萬眞身』條 ‘所持錫杖一日三時作聲 遶房三匝’)고 하여, 보천이 가지고 있던 석장이 의례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보천이 요잡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신성굴은 요잡행위가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 석굴사원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신라의 고승인 義湘(625~702)이 皇福寺에 있을 때 ‘무리들과 함께 탑을 돌았는데, 매번 허공을 밟고 올라갔으며 계단을 밟지 않았다.’(卷 第四 義解 第五 『義湘傳教』條 ‘湘住皇福寺時 與徒衆繞塔每步虛而上 不以階升’)고 하여 요탑행위를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유가종의 시조인 대덕대현은 (경주)남산에 살았다. 절에는 돌로 된 장육의 미륵상이 있었는데, 대현이 항상 주위를 돌면 장육상도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卷 第五 義解 第五 『賢瑜珈海華嚴』條 ‘瑜珈祖大德大賢 住南山茸長寺 寺有慈氏石丈六 賢常旋繞 像亦隨賢轉面’)고 하여, 8세기 중반의 경덕왕대의 고승인 대현이 불상의 주위를 돌아 곧 요불행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는 元聖王(재위기간은 785~798)대의 일로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 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의 전탑을 도는 것을 福會로 삼았다. 원성왕대에 낭군 金現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있었는데 염불을 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卷 第五 感通 第七 『金現感虎』條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遶興輪寺之殿塔爲福會元聖王代 有郎君金現者 夜深獨遶不息 有一處女 念佛隨遶 相感而目送之’)고 하여 흥륜사에서의 요탑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供養이라하고, 香·燈·花·果·茶·米 등이 주 대상이 된다. 그 중 향공양과 등공양은 예부터 공양행위 중 으뜸이 되어 왔다. 燈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大智度論』에 의하면 꽃공양, 향공양과 더불어 등공양은 부처께 바쳐진 공양의 하나로서, 그 목적은 貪(탐욕)·瞋(증오)·痴(어리석음)를 없애려는데 있다고 하였다.³²⁾

고대 한반도의 등공양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중국내의 新羅院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신라인의 풍속과 불교의례에 대해 상당수 기록한 일본의 승려 엔닌(圓仁, 794~864)의 여행기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838년 정월 15일에 행한 중국 연등회의 묘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고대사회에서 행해진 등공양시설에 대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절에서는 불전 앞에 燈樓를 세우고, 돌계단 아래와 뜰 그리고 행랑 쪽에는 모두 기름등을 밝혔다. 그 등잔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³³⁾

기존의 연구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고대 아시아 지역에서 석등이 발견되는 사례는 매우 적는데,³⁴⁾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石造의 燈具가 아닌, 불에 쉽게 전소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이를 제작하였거나 혹은 야외의 中庭空間에 등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사를 통해 그 이유가 야외에 등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현상이나 그 제작은 목제로 하여 이후 전소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의 기사를 통해서 등시설이 정확히 불전 앞에 배치되고, 이는 공양을 위한 시설물로 조영됨을 알 수 있다. 즉 전각 앞에는 공양행위를 위한 1기의 등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연등을 위하여 기름 등으로 불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공양행위 가운데 등공양은 특히 고대부터 단순한 의례행위를 넘어서 현재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는 의식으로도 진행되는데, 그것은 바로 연등회이다. 우리나라 연등회의 전래는 중국불교사상 가장 전성기였던 唐代에 시행된 上元 燃

³²⁾ 김종명, 2001,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문학과 지성사, 116쪽.

³³⁾ 엔닌 지음(김문경 역주), 앞의 책 97쪽.

³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석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네팔에서는 7기의 석등이 전하며, 중국에서는 단지 2기만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飛鳥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飛鳥寺址의 것과 奈良時代의 것으로 興福寺·山田寺址에서 각각 연화하대석이 발견되고 있다. 그 밖에도 平安時代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등이 몇 점 알려져 있으나 그 수가 우리나라에서처럼 많지는 않다. (鄭明鎬, 1994,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燈會에서 비롯되며, 이는 佛誕日法會·成道會·涅槃會·孟蘭分會·節日法會·忌日法會와 함께 행해졌다.³⁵⁷

그러나 고대 한반도의 연등회는 도교와의 연관성을 가지며 국가의 고유행사로서 후한(25~220)시대에 처음 시작된 중국³⁶⁰과는 달리, 통일신라 후반기인 9세기 말경에 시작되었으며, 불교적인 성격보다 연회적인 성격을 가지며 시작되어 그 차이가 있다. 이후 고려시대가 되면 연등회는 고려 태조에 의해 <訓要十條>로도 그 시행이 강조되는 등 정기적인 불교의식으로 정착된다.³⁷¹

등공양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양행위인 香供養은 그 전래와 한반도에서의 시원에 대해 『三國遺事』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新羅本紀 제4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 19대 눌지왕때 沙門 목호자가 고구려(高麗)로부터 一善郡에 이르렀다. 군사람인 毛禮(혹은 毛祿이라고도 한다)가 집안에 굴을 파서 그를 편히 있게 하였다. 그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전해왔다. 君臣은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서 사람을 시켜 향을 싸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묻게 하였다. 목호자가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데, 이를 사르면 향기가 매우 강하여 神聖에게 정성을 통하게 하는데 쓰인다. 신성은 三寶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만약 이것을 사르며 발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때 왕녀가 몹시 위독했는데 목호자를 불러들여 향을 사르며 서원을 표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곧 나았다. 왕이 기뻐하며 예물을 후하게 주었는데, 얼마 후에 간 곳을 알 수 없었다.³⁶⁷

이 뿐만 아니라 향공양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향공양 시설과 공양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357) 大容光照, 1937, 『唐代佛教의 儀禮』, 『史學雜誌』46, 10~11쪽. 그리고 당대에는 無渡大會·佛牙 供養法會·齊會·八關齋會·護經法會 등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367) 불교의 시초인 인도에서는 연등회라는 행사가 없었으나, 중국에서는 한나라의 황제가 불탑사에 관리를 파견하여 승려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후 연등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2세기부터 연등행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歷代三寶紀』4, 『大正新修大藏經』1470.24.923. 17~20쪽, (김중명 위의 책)

371) 특히, 고려의 연등회는 팔관회와 더불어 의례규정이 『高麗史』禮志 嘉禮 雜儀 條에 편제될 정도로 중요시된다.

387) 『三國遺事』卷 第三 興法 第三 『阿道基羅 [一作我道 又阿頭]』條 ‘新羅本記第四云 第十九訶祇王時 沙門墨胡子 自高麗至一善郡 郡人毛禮或作毛祿 於家中作堀室安置 時梁遣使賜衣著香物 [高得相詠史詩云 梁遣使僧曰 元表宜送溟檀及經像] 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齋香遍問國中墨胡子見之曰 此之謂香也 焚之則香氣芬馥 所以達誠於神聖 神聖未有過於三寶 若燒此發願則必靈應 [訶祇在晉宋之世 而云梁遣使 恐誤] 時王女病革 使召 墨胡子焚香表誓 王女之病尋愈 王喜厚加賚賜 俄而不知所歸’



<그림 12> 通度寺 소장
<太康十一年銘 拜禮石>



<그림 13> 부석사 무량수전 앞 봉로대

죽령(竹嶺) 동쪽 100리쯤 되는 곳에 우뚝 솟은 높은 산이 있는데, 진평왕(眞平王) 9년(587) 갑신(甲申)에 갑자기 사면이 한 길이나 되는 큰 돌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사방여래(四方如來)의 상(像)을 새기고 모두 붉은 비단으로 싸여 있었는데 하늘에서 그 산마루에 떨어진 것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그 돌을 쳐다보고 나서 드디어 그 바위 곁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대승사(大乘寺)라고 했다. 여기에 이름은 전하지 않으나 연경(蓮經)을 외는 중을 청해다가 이 절을 맡겨 공석(供石)을 깨끗이 쓸고 향화(香火)를 끊이지 않았다.³⁹⁾

이를 통해서 예불대상 앞에 공양돌을 마련하여 그 위에 향로를 얹어 향공양을 행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7세기 전반에도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향공양에 대한 기록은 『三國遺事』의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卷第2 奇異 第2 「景哀王」條, 卷第3 塔像 第4 「三所觀音 衆生寺」條의 승려 性泰에 대한 기록, 卷第4 義解 第5 「二惠同塵」條의 金剛寺 落成會에서의 기록, 卷第5 神呪 第6 「密本摧邪」條의 金剛사에 머물때 김유신과 관련한 일 등에서 살필 수 있다.

또한 차공양에 대한 기록도 卷第3 塔像 第4 「臺山五萬眞身」條에서 두 태자인 寶川과 孝明의 두태자가 행한 차공양에 대해서도 『三國遺事』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사찰 야외공간의 예배대상물인 탑과를 제외한 나머지 석조물들은 그 역할과 용도가 대부분 무시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석등을 들 수 있는데, 공양시설인 석등은 석탑을 제외한 야외석조물 가운데 남아 전하

³⁹⁾ 『三國遺事』卷第3 塔像 第4 「四佛山掘佛山萬佛山」條, '竹嶺東百許里 有山屹然高峙 眞平王九年甲申 忽有一大石 四面方丈 彫四方如來 皆以紅紗護之 自天墜其山頂王聞之命觀瞻敬 遂創寺 嵩側 額曰大乘寺 請比丘亡名誦蓮經者主寺 洒掃供石香火不廢'



<그림 14> 화엄사 사사자석탑영역 석등
공양인물상의 찻잔



<그림 15> 화엄사 사사자석탑영역 석등
공양인물상의 찻잔의 내부구조

는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석조물들이 사찰 야외공간에 위치하는데, 그 중 공양시설과 관계된 것들에 한해서 그 역할과 용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석등은 등공양을 위한 시설로 그 형태와 용도, 성격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석등과 함께 공양을 위한 시설로 생각되는 奉爐臺(혹은 奉爐石)는 그 용도와 성격이 拜禮石과 혼돈되어 정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대부분 배례석으로 불리었다.⁴⁰⁾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장충식선생에 의해 通度寺의 ‘太康十一年銘 拜禮石’(그림 12)을 고찰하면서 시작되었다. 장충식선생은 배례석의 놓인 위치와 방향·형태에 따라 배례를 행하기에 부적합하며, 이것이 의식집행과 관련한 시설일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용도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정의내리지 못하였다. 봉로대의 명칭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佛國寺古今創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웅전과 극락전 앞에 봉로대가 놓여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현재 배례석으로 명칭되고 있는 봉로대가 19세기 초까지는 그 기능이 정확히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현재까지 발견된 봉로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 장충식선생은 『太康十一年銘 通度寺 拜禮石考』에서 배례석에 대하여 禮敬을 위해 종교행사에 사용되는 관석으로 이를 정의하고, 배례석의 위치가 법당을 향하지 않고 평행으로 놓인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그 위로 올라가 예배를 행하기에 부적합하며, 의식집행과 관련한 시설물로 추정하고 香爐나 촛대 등을 올리는 시설물로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배례석을 종교의식을 거행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징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하여, 초기에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되어 후에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御拜石’의 명칭으로 까지 불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41) 문화재관리국, 1976, 『불국사 경내유물 개요』, 『불국사 복원공사 보고서』.

<표 6> 현재까지 확인된 봉로대

	분류	명칭		분류	명칭
1	석등 · 봉로석	부석사 무량수전 앞	17	석탑 · 봉로석	관촉사
2		불국사 대웅전	18		해인사
3		불국사 극락전	19		양양 선림원지
4		화엄사 각황전 앞	20		전 문경 5층석탑
5		화엄사 구층암	21		강원 한계사지
6		경남 용천사 대웅전 앞	22		충남 공주 신원사
7		경북 대구 부인사	23		화엄사 서5층석탑
8		현화사	24		거둔사지
9	승탑 · 석등 · 봉로석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25	위치상실 봉로석	법천사지
10		회암사지 雙獅子石燈	26		법광사지
11		회암사지 懶翁禪師塔	27		무위사
12		회암사지 指空禪師塔	28		경남 거창 古見寺
13		회암사지 無學禪師塔	29		경남 산청 지곡사지
14		望月寺 慧炬國師塔	30		청도 장연사지
15		청룡사 보각구사정혜원릉탑	31		귀신사
16	쌍탑·석등·봉로석	보림사	32	김천 쌍계사지	

즉, 奉爐臺(그림 13)는 향공양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이에 대해서는 ‘洒掃供石香火不廢’라 하여 고대부터 향공양을 위한 공양돌로서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석탑·승탑 등의 전면에 위치하고, 그 형태는 세로에 비해 가로가 3배가량 길며, 높이가 20~30cm인 직사각형 판석의 구조이다. 판석의 상면에는 1개 혹은 3개의 연화문이 양각으로 부조되어 있으며, 좌우측면에는 眼象이 1~2 개씩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봉로대를 사용한 고대사회에서의 향공양의례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그 행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엄사 사사자석탑 영역의 석등과 봉로대이다. 이 영역의 인물형 석등은 탑을 향해 우슬착지의 자세로 공양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탑과 석등의 사이에는 2기의 봉로대가 위치하는데, 석등바로 앞에 위치한 것은 후대에 이운된 것으로 생각된다.⁴²⁾ 봉로대를 앞에 두고 공양을 드리는 인물의 형태는 고대의 향공양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품이라 할 수 있다. 공양인물상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오른손은 무릎 위로 올리고 왼손은 찻잔(그림 14)과 유사한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는

42) 그 이유는 석탑과 석등, 이 두 석조물의 거리 1/2 지점에 위치한 봉로대는 모두 지대석을 가지며 위치하고 있어, 제작당시 원위치를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석등과 접하며 위치한 봉로대는 지대석을 가지지 않으며, 굳이 2기의 봉로대를 조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림 16.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일제시대 화엄사 사사자석탑 앞 석등



그림 17.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중앙), 중국 당나라 (추정), 높이 13.9cm, 너비 6.9cm, 국보 제42호

정확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화엄사 공양인물상(그림 16)의 지물은 현재의 찻잔과 같은 형태 위로 원주가 얹혀진 형태를 취한다. 이는 현재 찻잔의 내부가 비어 있는 것(그림 15)을 감안할 때 별도로 제작된 석제의 원주가 끼워진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향공양행위와 인물상, 지물의 형태는 <松廣寺 木造 三尊佛龕>(그림 17)에서도 확인된다. 불감의 중앙부에 위치한 본존의 아래로 2구의 인물상이 향로를 중심으로 공양을 행하고 있는데, 향좌측에 위치한 인물상이 들고 있는 지물은 화엄사 공양인물상의 그것과 동일하다.⁴⁴⁾ 그리고 봉로대의 상면에 양각으로 표현된 연화문은 향로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모습은 통일신라 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그림 18)에서 알 수 있다. 삼릉계석불의 대좌 중대에는 각 면에 안상을 음각하고, 그 내부에 보살입상과 함께 향로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표현된 향로는 합의 형태로 향로의 저부는 연화문의 위로 위치한다. 이는 곧 봉로대의 상면에 놓여진 향로의 모습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拜禮石은 정확한 절대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통도사의 ‘太康十一年銘

43) 최근 화엄사 사사자석탑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신용철, 2006, 『華嚴寺 四獅子石塔의 造營과 象徵-塔으로 구현된 光明의 法身』,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44) 위 지물은 분명 향공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도구로 생각되나 현재는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단정짓기 어렵다. 이는 차후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림 18.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9세기 중엽, 높이 1.45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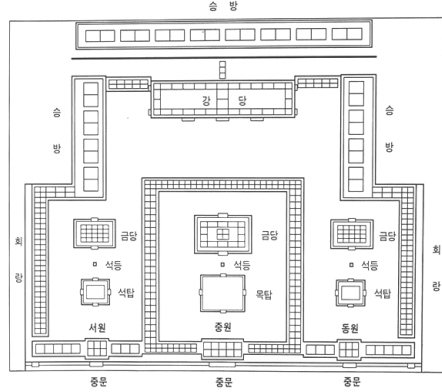


그림 19. 익산 미륵사지 가람배치사진

(1085) 배례석이 대표적이다. 그 형태는 가로에 비해 세로가 2배 이상 길고, 높이는 10~20cm 이하인 세장한 구조로, 상면에는 문양이 표현되지 않거나 문양을 표현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좌우측면에는 문양이 표현되지 않는다.

문헌사료를 통해서 배례를 위해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시설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배례의 개념으로 돌 위에서 행위가 있었음을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사료 1. 又泗泚 언덕에는 또 돌 하나가 있는데 10여 명이 앉을 만하다. 백제 왕이 王興寺에 가서 부처에게 예(禮)를 드리려 할 때면 먼저 그 돌에서 부처를 바라보고 절을 하면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졌다 해서 그 돌을 煖石이라고 한다.⁴⁵⁾
- 사료 2. 그는 처음에 7일 밤을 기약하고 五輪을 돌에 두들겨서,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바위 언덕에까지 피가 쏟아졌다.⁴⁶⁾

현재 배례석은 봉로석에 비해 확인되는 사례가 적는데, 통도사의 배례석을 제외하면 직지사 배례석, 무위사 극락전 앞 배례석, 남원 만복사지 배례석 등이 있다.

45) 『三國遺事』卷 第2 紀異 第2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 已見上』條, ‘又泗泚崖又有一石 坐十餘人 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 先於此石望拜佛 其石自煖 因名煖石’

46) 『三國遺事』卷 第4 義解 第5 『眞表傳簡』條, ‘初以七宵爲期 五輪撲石 膝腕俱碎 雨血岬崖’

이상에서 공양시설로 설치된 석등과 함께 야외에 위치하는 향공양을 위한 시설인 봉로석 배례행위를 위해 설치된 배례석 등을 살펴보았다. 공양시설물의 배치는 우선, 예불대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가운데 석등이 그 위치를 정함에 있어 표지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가람 내에서는 석등을 기준으로 봉로석이 배치되는데, 이 외의 공간인 승탑이 위치한 지역이나 마애불 앞에서는 그 배치가 달라짐이 확인된다.

2. 석등조성과 예불대상 문제

불교는 한반도의 국가종교로 시작되어 현재는 민간신앙으로 이어지며, 약 1500여년이라는 시간동안 전승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공양행위를 함에 있어 불전의 내부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공양을 드리는 대상은 불전 내의 불상이나 전각 내의 탕화에 한정되어 있으며, 탑돌이나 야외에서의 의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대의 공양시설은 대부분 불전 내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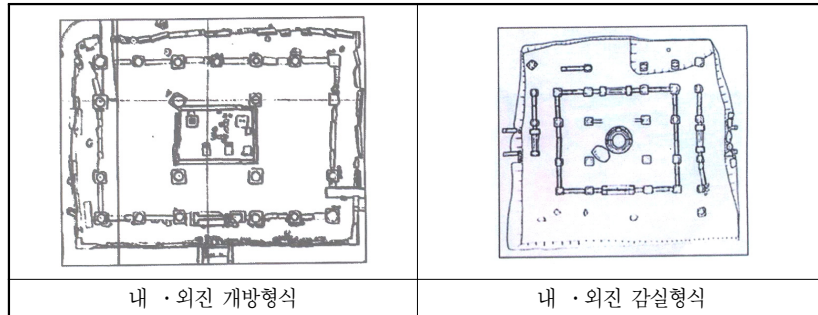
그러나 고대의 공양시설물 가운데 그 일부는 야외에서 확인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石燈·奉爐臺 등이다. 그렇다면 왜 고대사회에서 예불대상에 대한 공양의례를 위해 야외시설물을 필요로 하였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고대 야외시설의 종류와 그 성격을 살펴보고, 그 조성배경을 알아보아 그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고자 한다.

현재 확인되는 고대의 야외 공양시설들은 모두 예배대상의 전면에 위치하는데, 그 예배대상은 塔·佛像 등이다.⁴⁷⁾ 공양시설인 석등이 어떠한 이유로 야외의 공간에 조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금당 내부공간의 구조와 주불이 봉안되는 위치와의 관련성이다. 사찰의 금당지 가운데 평면구조가 확인된 사례는 6세기 중엽의 부여 정림사지를 필두로, 공주 능산리사지, 황룡사 중금당지, 황룡사 동·서 금당지, 익산 미륵사지 중원 금당, 동·서원 금당, 분황사지 중금당, 분황사지 동·서금당, 감은사지,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고선사지, 불국사 대웅전·극락전·비로전, 토함산 석굴암, 장항리사지, 천군리사지, 화엄사 장육전, 보문사지, 영일 법광사지, 울주 간월사지, 양양 선림원지, 합천 영암사지, 경주 숭복사지, 만주 상경용천부 제 9절

⁴⁷⁾ 탑과 불상에 대한 예배는 고대사회의 자료에서 빈번히 찾을 수 있지만, 승탑에 대한 예경을 위해 설치되는 공양시설은 조선시대 이후에야 등장한다. 현재 승탑의 앞에 위치하는 석등으로는 충북 충주시 청룡사 普覺國師定慧圓融塔 앞 獅子石燈, 경기도 양주 檜巖寺址 雙獅子石燈, 경기도 여주 神勒寺 普濟尊者石鐘 앞 石燈 등이 있다.

터 등이 있다.

평면 구조가 확인된 사례 중에서도 내부의 구조가 확인되어 불상의 봉안 위치를 알 수 있는 예는 경주의 사천왕사 금당지⁴⁸⁾, 불국사 비로전, 보문사 금당지, 황룡사 중금당지, 법광사 금당지, 합천 영암사 금당지, 울주 간월사 금당지, 강원도 양양 선림원 금당지, 상경 용천부 제 9절터 금당지, 구례 화엄사 장육전 등이 있다.



<그림 20> 고대불전 내부공간 구조

언급한 금당지들의 경우, 불상의 봉안처는 모두 금당의 중심부인 내진주⁴⁹⁾ 내부에 해당된다. 방향의 평면내부에 內陣柱를 배열시키고, 내진과 외진 사이를 개방시킨 형태인 내·외진 개방형식⁵⁰⁾은 울주 간월사지, 양양 선림원지, 경주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불국사 비로전, 보문사지 등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내진부와 외진부를 벽체로 구분한 형식으로 내진주 사이에 벽체를 둘러 불상 봉안부를 폐쇄적인 감실의 형태로 조성한 내·외진 감실형식은 내진주 초석열에 고막이돌과 신방석⁵¹⁾의 존재로 내진에 벽체가 가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 사천왕사는 2006년 4월25일부터 서쪽 회랑지와 목탑지를 시작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982년부터 84년에 걸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의해 측량 및 지표조사가 행해졌으나, 보다 자세한 금당의 구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한 현재의 발굴조사 이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도면을 생략하였다.

49) 內陣은 곧 高柱로 건물 내부의 내진칸을 감싸고 있는 기둥을 말한다. 대개 내부의 기둥은 외곽 기둥인 외진에 비해 키가 크기 때문에 고주라고 부른다.

50) 이강근, 1998,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研究』, 『美術史學』,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51)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上 - 한국전통민가의 원형연구, 悅話堂 美術選書, 1983에 의하면, 『三國史記』屋舍條의 제한령의 기록에서 ‘백성과 4두품과 그 이하의 집에서는 階砌(밧돌과 섬돌)를 산돌로 쓸 수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5두품 이상의 집에서는 주춧돌과 고막이 그리고 밧돌과 계단, 섬돌에 산돌을 떠다가 쓰거나 다듬어 사용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주춧돌과 주춧돌 사이에 고막이돌을 두는 것은 고급의 저택이나 건물에서의 법식으로 신라시대의 眞骨이

감실형식의 금당으로는 합천 영암사지, 상경 용천부 제 9절터, 구례 화엄사 장육전, 경주 황룡사 중금당지, 법광사 금당지 등이 있다.

<표 7> 고대 사찰 금당지 내부구조 확인사례

사찰	조성연대	평면		내진부		주불봉안처
		정면	측면	정면	측면	
경주 사천왕사	679년 경	5칸	3칸	3칸	1칸	정면 1칸, 측면 1칸
불국사 비로전	8C 초~9C 후반	5칸	3칸	3칸	1칸	정면 1칸, 측면 1칸
보문사	미상	7칸	5칸	5칸	3칸	정면 3칸, 측면 1칸
황룡사 중금당지	584년 경	9칸	4칸	7칸	2칸	정면 7칸, 측면 2칸
법광사지	미상	5칸	5칸	3칸	3칸	정면 1칸, 측면 1칸
합천 영암사지	9세기(추정)	3칸	3칸	1칸	1칸	정면 1칸, 측면 1칸
울주 간월사지	9세기(추정)	3칸	3칸	1칸	1칸	정면 1칸, 측면 1칸
양양 선림원지	804년 경	3칸	4칸	-	-	-
상경 용천부 제 9절터	9세기(추정)	5칸	4칸	-	-	-
구례 화엄사 장육전	8세기 중반	7칸	5칸	5칸	3칸	정면 3칸, 측면 1칸

그런데 고대의 금당 내부공간은 벽체의 유무를 떠나, 내진부에 위치하는 불상봉안에 의해 불상의 전면에서 공양·배례행위를 행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을 가진다. 이러한 금당 내부공간은 야외공간에 공양시설을 마련하게 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로 인하여 외부의 의식공간이 현재보다 중요시되었을 것이다.⁵²⁾

두 번째는 야외공간에서의 활발한 의례행위가 석등의 조성을 필요로 하였을 가능성이다. 야외 공간에서 행해진 의례에 대한 기록은 『三國遺事』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의 사료는 9세기 초의 일로서 법회가 행해질 때 금당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의식이 행해졌으며, 외부에서는 금당 출입을 하지 못한 신도들

나 6두품의 집 정도에 채택하였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방바닥에 方輒을 까는 등의 맨바닥이었을 경우, 고막이돌이 있어야 그 끝정리가 맡끔하게 될 것이고, 柱座와 고막이가 함께 만들어지는 유형이라면 주좌를 융기시켜 쇠실이한 것처럼 고막이에도 융기부분을 두어 주좌와 하방받침의 높이를 수평지게 만들어 하방을 후대에서처럼 기둥뿌리보다 높은 자리에 수장들이는 방법과 다른 범식을 보이는 것이다.

고막이가 함께 만들어지는 주추는 따로 만든 고막이돌에 이어지도록 만드는데, 柱間에서 주춧돌 사이에 따로 만든 고막이돌이 삽입되어 전 주간을 연이어 놓는다. 이런 고막이돌을 설치하는 유형에서는 문얼굴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신방석을 만든다. 이는 문짝이 무거운 板扇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무게를 지탱해 주고 쉽게 여닫도록 하기 위하여 문얼굴에 信防木을 두었다. 신방목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신방석이 필요한데, 주추·고막이·신방석이라는 구성은 매우 격조 높은 것이며, 바닥이 방전으로 처리되는 경우 혹은 맨바닥일 경우 사용된다.(273~274 쪽)

⁵²⁾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정공간에서의 의식은 海印寺 藏經佛事와 奉恩寺의 正大佛事, 그리고 각종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괘불제 등이 있다.

이 배례행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승려 心地는 辰韓 제41대 憲德大王 金氏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깊고 천성이 맑고 지혜가 있었다.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서 佛道에 부지런했다. (지금의 公山)에 가서 살고 있는데 마침 俗離山의 深公이 眞表律師의 佛骨 簡子를 전해 받아서 果訂法會를 연다는 말을 듣고, 뜻을 결정하여 찾아갔으나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땅에 앉아서 마당을 치면서 信徒 들을 따라 예배하고 참회했다. 7일이 지나자 큰 눈이 내렸으나 心地가 서 있는 사방 10척 가량은 눈이 내리지 않았다.⁵³⁾

아래의 기록 또한, 중정의 뜰에서 일반신도들이 염불을 하며 예불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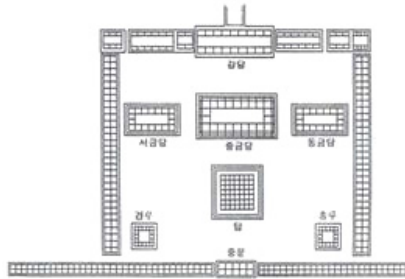
景德王 때 康州(지금의 晉州, 또는 康州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順安이다)의 남자 신도 수십 명이 뜻을 西方에 구해서 고을의 경계에 彌陀寺를 세우고 만일을 기약하여 契를 만들었다. 이때 阿干 貴珍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郁面이라 했다.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중을 따라 念佛했다. … 그녀는 뜰 좌우에 길다란 말뚝을 세워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매고는 合掌하면서 좌우로 흔들며 자기를 격려했다. 그 때 하늘에서 부르는데, “郁面娘은 堂에 들어가 염불하라” 하였다. 절의 중들이 듣고 계집종을 권해서 당에 들어가 전처럼 精進하게 했다.⁵⁴⁾

그 밖에 야외 공간에서 탑돌이를 한 기록도 확인된다. 첫 번째는 신라 고승인 義湘(625~702)이 皇福寺에 있을 때 ‘무리들과 함께 탑을 돌았는데, 매번 허공을 밟고 올라갔으며 계단을 밟지 않았다.’⁵⁵⁾고 하여 요탑행위를 했음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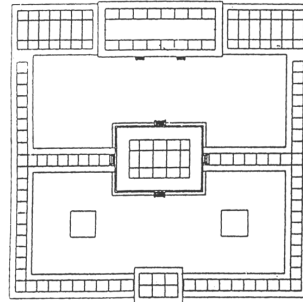
53) 『三國遺事』卷 第四 義解 第五 『心地繼祖』條 ‘釋心地 辰韓第四十一主憲德大王金氏之子也 生而孝悌 天性冲睿志學之年 落采從師 拳斂于道 寓止中岳[今公山] 適聞俗離山深公傳表律師佛骨簡子 設果訂法會 決意披尋 既至後期 不許參例 乃席地扣庭 隨衆禮懺 經七日 天大雨雪所立地方十尺許 雪飄不下衆見其神異 許引入堂地 擔謙稱恙 退處房中 向堂潛禮’

54) 『三國遺事』卷 第五 感通 第七 『郁面婢念佛西昇』條 ‘景德王代康州[今晉州 一作剛州 則今順安] 善士數十人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 立中庭 隨僧念佛 主憎其不職 每給穀二碩 一夕春之 婢一更春畢 歸寺念佛[埋石已事之忙 大家之春促 蓋出乎此] 日夕微怠 庭之左右 豎立長楸 以繩穿貫兩掌 繫於楸上合掌 左右遊之激勵焉 時有天唱於空 郁面娘入堂念佛 寺衆聞之 勸婢入堂 隨例精進’

55) 『三國遺事』卷 第四 義解 第五 『義湘傳教』條 ‘湘住皇福寺時 與徒衆繞塔 每步虛而上不以階升’



4. 최종 가람 배치도



<그림 22> 감은사지 가람배치사진

<그림 21> 황룡사 최종가람 배치사진

이다. 두 번째는 元聖王(신라 제 38대왕, 재위기간은 785~798)대의 일로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흥륜사의 전탑을 도는 것을 福會로 삼았다. 원성왕대에 낭군 金現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있었는데 염불을 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⁵⁶⁾고 하여 흥륜사에서 요탑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야외에서의 활발한 의례행위는 공양시설 또한 필요로 하였을 것이며, 석등과 봉로석은 이러한 야외 공양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석등은 외부의식공간인 중정의 가람배치 상에 놓이며, 중정에서 행하는 의식과 함께 불을 밝혀서 등공양을 드리는 시설로서 기능을 한다. 이는 탑과 더불어 외부의 의식공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연등행사에서 수박등을 들고 탑돌이를 하는 것과는 차이를 가진다.

등시설의 배치설정에 대해서는 『佛說施燈功德經』제 2장에서 「塔廟諸形像前而設供養」이라 한 것을 두고, 석등은 의식공간인 실외 예불 탑상 앞에 놓인다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고대 한반도의 석등배치는 일정 형식을 가지면서도 1가지 배치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을 보임이 확인된다. 사찰 공간은 크게 중심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되는데,⁵⁷⁾ 중심영역은 주불전과 탑파가 위치한 중정공간 및 기타 주요 전각과 함께 석등이 배치되는 영역이며, 주변영역은 주불전의 뒤편으로 위치한 중정이나 입구 등에 사찰

56) 『三國遺事』卷 第五 感通 第七 「金現感虎」條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競遠興輪寺之殿塔爲福會 元聖王代 有郎君金現者 夜深獨遠不息 有一處女念佛隨遠 相感而目送之'

57) 윤준용, 1995, 『한국사찰건축에 있어서 석등의 배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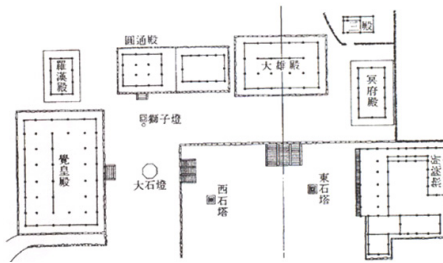
전각들과 무관하게 조영된 탑과가 위치한 영역이다. 이러한 중심영역과 주변영역은 또한 탑의 유무와 수, 금당·탑과의 위치관계에 따라 또다시 분류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통일신라 석등배치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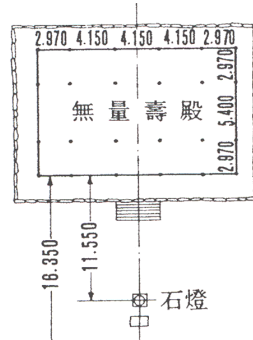
	사찰	영역	공간형식	석등배치
1	미륵사지	중심	단탑형식	금당 - 석등 - 탑
2	황룡사지	중심	단탑형식	금당 - 석등 - 탑 - 석등 (3기)
3		중심	단탑형식	금당 - 탑 - 석등
4	경주 분황사	중심	단탑형식	금당 - 탑 - 석등 (3기)
5	영주 부석사	중심(무량수전)	무탑형식	금당 - 석등·봉로석
6		주변(삼층석탑)	단탑형식	탑 - 석등
7	경주 감은사지	중심	쌍탑형식	금당 - 쌍탑·석등 병립형
8	경주 불국사	중심(대웅전)	쌍탑형식	금당 - 석등·봉로석 - 쌍탑
9		중심(극락전)	무탑형식	금당 - 석등·봉로석
10	경주 석굴암	중심	무탑형식	금당 - 석등
11	구례 화엄사	중심(각황전)	무탑형식	금당 - 석등·봉로석
12		주변(사사자석탑)	무불전형식	탑 - 봉로석 - 석등
13	합천 영암사지	중심	무탑형식	금당 - 석등
14	경주 원원사지	중심	쌍탑형식	금당 - 쌍탑·석등 병립형
15	울주 간월사지	중심	무탑형식	금당 - 석등
16	합천 청량사	중심	단탑형	금당 - 탑·석등·봉로석
17	남원 실상사	중심	쌍탑형식	금당 - 석등 - 쌍탑
18	장흥 보림사	중심	쌍탑형식	금당 - 쌍탑·석등 병립형

* 윤준용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필자가 제작성한 것임을 밝힘.

중심영역의 무탑형식은 불전의 정면에 석등이 배치됨에 있어 탑과 무관하거나 탑 없이 석등만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주불전 영역이 둘 이상이거나 혹은 교리와 연관하여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단탑형식은 전각들과 함께 탑이 배치된 가람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석등이 금당·탑과 중심축선상에 놓여지는 것이 상례이다. 대개 금당이 중축선상의 제일 후방에 위치하고 그 앞으로 석등·탑이 위치하는데, 석등과 탑의 선후관계에 따라 또 다시 형식이 구분된다. 우선, 금당-석등-탑형식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등 유구가 발견되는 익산 미륵사지(그림 19)에서 나타나는데, 이후 통일신라시대 가람에서는 확인되는 사례가 없고, 고려시대의 중원 미륵대원·관촉사 등 전라도·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그림 23> 화엄사 가람배치사진



<그림 24> 부석사 가람배치사진

그리고 금당-탑-석등의 형식은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현재 평지에 위치한 고대가람인 황룡사지(그림 21)와 분황사에서 확인되는데, 조사된 통일신라 가람들 가운데 현재 확인되는 사례가 없다.

쌍탑형식은 통일신라 이후 쌍탑의 출현과 함께 석등의 배치도 변화한 것으로 금당의 중심축선상에서 당탑간에 놓여지는 방식과 금당의 중심선상에서 좀더 전방으로 나와 양탑 사이에 놓여지는 경우로 나뉜다. 이는 금당의 전면에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2기의 탑이 조영되는 가람에서 석등이 양탑 간의 중앙에 오는 탑·석등 병립형의 배치형태와 석등의 위치가 금당의 전면으로 접근한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최초의 사례는 감은사지(그림 22)이다. 이러한 배치는 이후 9세기 중후반의 장흥 보림사와 경주 원원사지에 계승된다. 그리고 금당의 전면에 석등과 봉로석을 두고, 그 뒤로 쌍탑을 배치시키는 것은 불국사 대웅전 영역이 유일하고, 봉로석을 제외하고 금당 전면에 석등을 두고 그 뒤로 쌍탑을 배치시키는 것은 남원 실상사에서 확인된다.

무탑석의 영역에서 금당 앞에 단순히 석등만이 조성되는 것은 9세기 후반 화엄사 장육전(그림 23)을 시작으로 9세기 말에는 합천 영암사지 울주 간월사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금당 앞에 석등과 함께 봉로석을 설치하는 유형은 부석사 무량수전(그림 24)과 불국사 대웅전·극락전에서 확인된다. 이는 모두 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이후 사찰의 중정과 같은 중심공간이 아닌 주변공간에 따로 조영된 영역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는 그 사례가 적으나 탑의 전면에 석등이 놓임으로써 예배대상을 공양하는 기능을 하고, 이후 고려·조선시대가 되면 승탑의 전면으로 석등이 위치하는 사례가 활발히 나타난다.

이러한 석등의 배치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변화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무탑식 가람은 그와 관련하여 『諡圓融國師碑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 절은 의상조사께서 중국인 西華에 유학하여 華嚴의 法炷를 智儼으로부터 이 절은 의상조사께서 중국인 西華에 유학하여 華嚴의 法炷를 智儼으로부터 전해 받고 귀국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본당(本堂)인 無量壽殿에는 오직 아미타불의 불상만 봉안하고 左右補處도 없으며 또한 殿前에 影塔도 없다. 제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義相스님이 대답하기를, “法師이신 지엄스님이 말씀하시기를, ‘一乘 阿彌陀佛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十方淨土로써 體를 삼아 生滅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화엄경 入法界品에 이르기를,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로부터 灌頂과 授記를 받은 이가 法界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두 補處와 補闕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으신 까닭에 闕時가 없으므로 좌우보처상을 모시지 않았으며 影塔을 세우지 아니한 것은 華嚴 一乘의 깊은 宗旨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열반에 들지 않은 아미타불을 모신 금당의 전면에는 탑을 두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합천 영암사지와 울주 간월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모두 금당이 동향을 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존불상이 결실되어 남아있지 않은 영암사지와 간월사지는 석등의 배치를 통해 금당 내 안치되었을 주존의 성격도 알아볼 수 있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익산 미륵사에서 확인되는 금당-석등-탑의 배치가 이후 고려시대의 미륵계 사찰에서도 동일한 배치를 보인다는 것 또한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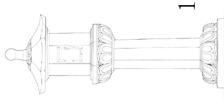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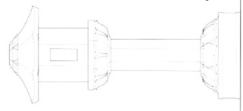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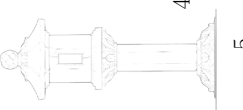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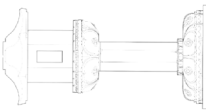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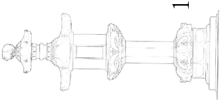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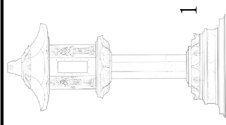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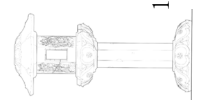

본 논고에서는 고대 불교의 등공양과 등공양시설에 대해 살피고, 석등의 유형분류와 결구방식을 통해 시기별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를 동시대 다른 석조물들을 통해 양식변천을 살펴 석등조형의 단계를 4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의 완형석등은 9세기 전반에서 1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총 4기의 시기로 구분되었는데, 특히 9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며, 3기에는 고풍형

석등의 등장과 함께 보다 장식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0세기 전반의 4기에는 급격한 도식화와 퇴화과정을 거치어 점차 변형을 보이다가 형식적인 특징만이 남고 이전시기의 미적인 면이 감소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석등의 상징성을 살펴보기 위해 불교의식과 공양의례를 살피고,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조성과 예불대상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석등은 등공양을 위한 시설로서 통일신라시대의 등공양은 향공양행위와 함께 야외에서 행해졌으며, 이를 위해 봉로대도 함께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통일신라 석등이 야외에 위치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금당의 내부구조에 따른 의례행위의 어려움, 야외 공간에서의 활발한 의식과 의례 등으로 이를 입증하였고, 석등의 배치를 통해 예불대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필자의 연구가 미진하여 이를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자에 의한 발전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투고일 2008년 7월 19일 |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2008년 8월 28일 ■

<표 4> 팔각형 간주석 석등의 양식변천

유형분류	1기 (9세기 전반)	2기 (9세기 중반)	3기 (9세기 후반)	4기 (10세기 전반)	비고
IA가				   	1.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2.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 3. 부석사 삼층석탑 앞 석등 4. 운문사 금당 앞 석등 5. 운문사 비로진 앞 석등 6. 화엄사 구층암 석등
IA나			 		1. 실상사 배장암 석등 2. 범주사 광장전 옆 석등 3. 범어사 석등
IA다					1. 보림사 석등 2. 표충사 석등
IB가					1.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IB다			 		1. 합천 백암리 석등 2. 범주사 사천왕 석등
IA 유형					
IB 유형					

<표 4-1> 쌍사자형·고북형 간주석 석등의 양식변천

유형분류	1기 (800~830)	2기 (831~860)	3기 (861~890)	4기 (891~900)	5기 (901~930)	비고
IIA나		→		→		1. 범주사 쌍사자 석등 2. 증흥산성 쌍사자 석등
IID다						1.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IIIA다					→	1.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2. 선림원지 석등
IIIB나						1. 합천 청량사 석등
IIIC다		→				1. 개산사지 석등 2. 임실 용암리 석등 3. 실상사 석등

II 유 정

III 유 정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入唐求法巡禮行記』
『雜寶藏經』
『增一阿含經』
『華嚴經』
『賢愚經』

보고서

國立文化財研究所, 1999, 『石燈調査報告書, I: 竿柱石篇』.
_____, 2001, 『石燈調査報告書, II: 異形式篇』.
동아대박물관, 1985, 『陝川 靈岩寺址 I』.
_____, 2005, 『陝川靈岩寺址 II』發掘調査報告書 (1,2차 합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76, 『불국사 복원공사 보고서』.

단행본 및 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1989, 『佛敎儀式』.
_____, 2000, 『感恩寺 東三層石塔 舍利莊嚴』.
文化財廳, 2001, 『國寶篇: 建造物』.
박경식, 1994, 『統一新羅 石彫美術 研究』, 학연문화사.
장충식, 1987,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_____, 2004, 『한국 불교미술 연구』, 시공사.
鄭明鎬, 1994,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정영호, 1985, 『國寶』7 - 石造, 예경산업사.
조선총독부, 1935, 『朝鮮古蹟圖譜』.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93, 『寶物 4 - 石造物(浮屠.石碑.石燈 및 其他)』.
홍윤식, 1992, 『불교의 공양』, 大韓佛敎振興院.

국문논문

- 姜友邦, 1995, 『韓國의 華嚴美術論』, 『伽山學報』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김미자, 2004, 『華嚴寺 四獅子三層石塔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朴慶植, 1991, 『9世紀 新羅 石造美術의 特性』, 『史學志』24, 檀國史學會.
- _____, 1995, 『9世紀 新羅 地域美術의 研究, 雪嶽山의 石造 造形物을 中心으로』, 『史學志』28, 檀國大史學會.
- _____, 1998, 『京畿道の 石造美術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9, 韓國文化史學會.
- _____, 1990, 『신라하대의 鼓腹形石燈에 관한 고찰』, 『사학지』, 단국사학회.
- _____, 1995, 『우리 나라의 석등 II』, 『古美術』39, 한국고미술협회.
- _____, 2002, 『京畿道の 石燈에 관한 考察 : 지정된 석등을 중심으로』, 『文化史學』18, 韓國文化史學會.
- 신용철, 2006, 『華嚴寺 四獅子石塔의 造營과 象徴-塔으로 구현된 光明의 法身』,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 심봉근, 1993.4, 『합천 청량사지와 석조물』, 『고고역사학지』9, 동아대학교 박물관.
- 안지원, 1999, 『高麗時代 國家佛教儀禮 研究 : 燃燈 · 八關會와 帝釋道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준용, 1995, 『한국 사찰건축에 있어서 석등의 배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李龜烈, 1978, 『中興山城 의 쌍사자석등』, 『法輪』110,法輪社.
- 李蘭英, 2002, 『韓國 雙獅子石燈 樣式 研究 試論』, 『文化史學』17, 韓國文化史學會.
- 李廷國, 2003, 『고대 및 중세 佛殿의 이용방식에 관한 研究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건축역사 연구』34, 韓國建築歷史學會.
- 李鍾錫, 1996, 『불국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慶北産業大 석사학위논문.
- 장충식, 1983,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美術史學研究(舊 考古美術)』, 한국미술사학회.
- 鄭明鎬, 1964, 『靑龍寺普覺國師塔碑와 石燈』, 『古考美術』5, 고고미술동인회.
- _____, 1970, 『韓國石燈의 樣式變遷 : 三國, 新羅時代 石燈을 中心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2, 『韓國 石燈樣式史 연구』, 檀國大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4,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절대년대와 편년설정 II』, 『박물관회보』5, 서울립대학교 박물관.
- 鄭永鎬, 1990, 『한국의 石燈』, 『古美術』26, 한국고미술협회.

Abstract

A Study on Stone Lantern in Unified Silla

Jung, Yun-Seo

The stone lantern was made of stone to light and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as well as the stone pagoda and stupa. It represented the hope and also was called as a votive lantern or prospect lantern because of the meaning of sacrifi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tone lantern began to be made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the study shows that fact through the important factors of foundation stones and support stones remained in the ancient ruined temple, but the ancient stone lanterns up to now verified are all limited to temple stone lanterns.

It was written in the early Sutras, 『Ekottara gama (增一阿含經)』 that lotus lantern sacrifice was stressed to build the charity. In the 6th century, as 『Prad pad n ya-s tra (佛說施燈功德經)』 and 『Karmavibha ga-n ma-dharmagrantha-stra (佛爲首迦長者說業報着別徑)』 were published, the lantern sacrifice was held in high repute. This kind of lantern sacrifice was recorded in the book, 『Sam-kuk-you-sa』 and it said that Ohjin stretched his arms to the temple, Bu-seok-sa to perform lantern sacrifice. And also, it was produced to aim at King's health, present age saving, and it had the character of defense of nation, which was written in the book, 『Dong-mun-sun(東文選)』, 『Shilla-su-chang-kun-ho-kuk-sung-pa l-kak-deung-lu-ki(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This thesis examines not only the structure of the stone lantern, but also the type of the stone lantern through the Hwasaseok, Okgaeseok, and Yeonhwadaeseok centering around Kanjuseok. Thinking these facts collectively, the formative character of Unified Shilla stone lantern is researched and as the period of the Unified Shilla stone lantern is set, the changes of the form can be examined. through the Buddhist image Daejaseok and stupa stereobate. The object of the research is to find the

formation object of stone lantern and symbolism of stone lantern as a sacrifice.

Up to now, the number of the Korean stone lanterns is about 280 and that of Unified Shilla is around 90 and among them, Wanhyoungseok is totally 24. These 24 stone lanterns are divided into 4 categories. The first specific difference is Ganjuseok. The octagon Ganjuseok-type is 14, the double-lion-type is 3, Yeonsim-type is 6, and person-type is 1. Second, the formation of Hwasaseok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ether how many light windows are and embossed sculpture exists or not. Third, the type of Okgaeseok is divided into 3 categories whether the decoration on the top is or not. Finally, Yeonhwadaeseok which flower patterns, Gueflower, and Yupmoon are scarved on the Yeonpan is divided into 5 categories. With these clarification, there is difference in the structure. What is the most different is the form of the smoke hole. The octagon Ganjuseok stone lantern differs in the structure of the foundation stones and support stones, and a coupling scheme of the upper parts. The double-lion-type stone lantern has difference in the structure of the Hadaehaseok and Hadaesangseok, and Ganjuseok prop. Yeonsim-type stone lantern are distinguished from the structure of the Sangdaeseok and Hadaeseok. The complete stone lanterns of Unified Shilla can be divided into 4 period from early 9th century to 10th century. Especially, in the 9th century, the stone lanterns were intensively made, and at the third period,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the Yeonsim-type stone lantern, it was getting more splendid and variety. At the 4th period, in the early 10th century, through the rapid schematization and degener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stone lantern appeared and some kinds of formal characters remained and aesthetic parts decreased.

At last, the symbolism of the Unified Shilla is known with sacrifice ceremony, the purpose of the stone lantern and worship before the image of Buddha. The stone lantern is a facility for lantern sacrifice and it was held outdoor like Hyang sacrifice. Especially, the reason why the Unified Shilla stone lantern was located in the open is that it was hard to held the ceremony because of the inner structure. Through the arrangement

of the stone lantern, the research showed that it was related to the worship before the image of Buddha.

Key words : Unified Shilla, stone lantern, ancient ruined temple, Buddhism ceremony, sacrifice ceremony, Hyang sacrifice